

# 『全琫準供草』<sup>1)</sup>

1·2차 공주 우금치 전투(1차 : 10월 23일~25일, 2차 : 11월 8일~11일)에서 패배한 농민군은 약 3천명 정도로 줄어들고 노성·논산까지 추격을 당하다 15일 은진에서 대패한다. 그 결과 500명 정도로까지 줄어든 농민군은 25일 전라도 금구 원평(구미란 전투)에서 다시 수만을 집결시켜 저항하지만, 대부분 사방으로 흩어져 버린다. 그리하여 약 8천 명 정도의 전봉준 군은 태인까지 후퇴하고, 여기서 27일 다시 추격해온 연합군(관군, 일본군)과 최후의 항쟁을 벌이지만 패배하고 만다. 이런 상황에서 전봉준은 농민군을 해산하고 순창 피로리로 피신하지만 12월 2일 사인 한신현 등이 조직한 민정들에게 생포되고 만다. 일설에는 전봉준이 자신의 부하로서 접사의 자리에 있던 김경천을 믿고 갔지만, 그가 밀고했기 때문에 생포되었다고도 한다. 전봉준은 12월 7일 일본군에 인도되고, 부상이 심했던지라 나주의 병원에 잠시 수용되어 미나미 고시로의 심문을 받다 전주를 거쳐 12월 18일 서울로 압송됐다.<sup>2)</sup>

일본 영사관 감방에 수감되어 있던 전봉준은 을미년(1895) 2월 9일부터 3월 10일까지 다섯 차례의 심문을 받는데 이 심문 기록은 『全琫準供草』(이하 『공초』)로 남겨져 우리 역사를 찾는 소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공초』는 8천자 내외의 간략한 책자로 정리되어 있으며, 기포 전에 고부에서 농민봉기를 일으켰던 상황부터 3월의 무장기포, 5

1) 장서각 보존 공초(한글토)

2) 조경달 저, 박맹수 역, 『이단의 민중반란』, 역사비평사, 2008, 318~319쪽.

---

월 전주성 입성, 6월부터 8월까지의 집강소 시기, 9월의 2차 기포, 그리고 패전 후 순창 피노리에서 체포될 때까지의 상황을 전봉준 자신의 진술로 기록한 유일한 자료이다.

법무아문의 재판관과 일본영사가 연석한 가운데 이루어진 다섯 차례의 심문기록인 『공초』는 1895년 2월 9일 초초 문목으로부터 재초 문목(2월 11일), 3차 문목(2월 19일), 4차 문목(3월 7일), 5차 문목(3월 10일)까지의 내용이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다. 다섯 차례에 걸친 심문이 끝나고 3월 29일 전봉준에 대한 최종판결은 내란죄가 적용되어 교수형을 선고받고 향년 41세로 처형당했다.<sup>3)</sup>

『공초』는 장서각과 규장각에 각각 보존되어 있는데 장서각 보존 공초는 한글 토로 되어있고, 규장각 보존 공초는 이두 토로 되어있다.

『공초』는 누가어떻게 기록했는지 연구가 되어 있지 않으며, 공초(진술) 보완 기록으로는 ①동경조일신문(1895. 3. ~ 5.), 8~10회 기사 게재, ②전봉준 등 판결 선고서(국가기록원), ③석남역사(전봉준 장군 제자 일기, 박문규), 한국학보, ④남원군 동학사(최병현, 천도교 남원 교구), 교조신원운동기의 행적 등이 있다.

---

3) 김은정·문경민·김원용, 『동학농민혁명 100년 : 혁명의 들불, 그 황톳길의 역사찾기』, 나남출판, 1999, 351~361쪽.

---

開國<sup>4)</sup>五百四年二月初九日東徒罪人 全瑋準 初招問 目

問 爾姓名爲誰

문 너의 이름은 무엇인가?

供 全瑋準

답 전봉준이다.

問 年幾何

문 나이가 몇 살인가?

供 四十一歲<sup>5)</sup>

답 41세이다.

問 居在何邑

문 살고 있는 곳은 어느 고을인가?

供 泰仁山外面東谷<sup>6)</sup>

답 태인 산외면 동곡리이다.

問 所業은 何事오

문 하는 일은 무엇인가?

供 士로 以業을 爲ᄃ읍나다

답 선비로 일을 하고 있다.

---

4) 1895년 을미개혁 때의 연호.

5) 1855년생.

6) 이곳은 김개남의 거주지와 비슷하다.(지금실)

---

問 今日은 法衙官員하고 日本領事가 會同審判하야 公正이 決處할터이니 一一이 直告하라

문 오늘은 법무관원과 일본영사가 회동 심판하여 공정하게 처결할 터이니 일일이 직고하라.

供 一一 直告하겟습니다

답 일일이 직고하겠다.

問 俄既明諭어니와 東學事는 一身의 相關한 일이 아니라 卽 國家의 大關이니 何許高等<sup>7)</sup>에 關係잇셔도 隱諱을 勿하고 直告하라

문 아까 이미 명유했거니와 동학과 관련된 일은 일신에만 상관한 일이 아니라 곧 국가에 크게 관계된 것이니 비록 높은 지위에 관계되는 것이 있어도 숨기지 말고 직고하라.

供 그리하오리다 所教을 依하려이와 當初의 本心 出하일이니 他人의 關係업나이다

답 그리하오리다. 가르친 바에 의하려니와 당초 본심에서 나온 일이니 타인과는 관계가 없다.

問 汝가 全羅道 東學魁首라 하니 果然耶

문 네가 전라도 동학 괴수라 하는데 과연 그러한가?

供 初以倡義<sup>8)</sup>로 起包하고 東學魁首<sup>9)</sup>라 할거션 읍나이다

답 처음은 창의로 기포하였고 동학 괴수라 할 것은 없다.

問 汝於何地의서 招集人衆하얏느냐

문 너는 어느 땅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느냐?

---

7) 대원군, 개화파 등.

8) 정치범, 사상범.

9) 특정 종교가 아니며, 공공적 과제였다.

---

供 全州地와 論山地의서 招集호얏삽나니다  
답 전주와 논산에서 불러 모았다.

問 昨年三月間의 古阜等地의서 民衆을 都聚호얏다호니 何事緣으로 그  
리 호얏느냐

문 작년 3개월간 고부 등지에서 민중들을 모았다 하니 어떤 이유가  
있어 그렇게 하였느냐?

供 其時 古阜倅가 額外의 苛斂이 幾萬兩인고로 民心이 怨恨호야 此舉  
가 有호얏나이다

답 그 때 고부군수가 정해진 것 이외의 가렴이 기만냥인 까닭에 민심  
의 원한으로 이 거사가 있었다.

問 雖曰貪官汚吏라도 名色必有然後事니 詳言호라

문 비록 탐관오리라 하여도 반드시 명색이 있었을 것이니 상세하게  
말하라.

供 今不可盡言其細目 而其概을 略告호읍니다 一은 民湫下의 築湫<sup>10)</sup>호  
고 勒政으로 民間의 傳令호야 上沓則 一斗落의 二斗稅을 收호고  
下沓則 一斗落 一斗稅을 收호니 都合租가 七百餘石이읍 陳荒地<sup>11)</sup>  
을 百姓의게 許其耕食호야 官家로 文券호야 徵稅안니호다더니 及  
其 秋收時의 勒收호 사요 一은 富民의게 勒奪錢葉 二萬餘兩이요  
一 其父가 曾經泰仁倅호 故로 其父을 爲호야 碑閣을 建告호다호고  
勒斂錢이 千餘兩이요 一은 大同米을 民間徵收호기는 精白米로 十  
六斗式 準價로 收斂호고 上納則 麤米을 貿호야 利條을 沒食한 事  
요 此外許다 條件은 이로 記得할 슈 읍나이다

---

10) 만석보.

11) 황무지.

답 지금 그 세목을 말로 다 할 수가 없으나 그 대개를 간략하기 고한다. 하나는 민보 아래에 축보하고 녹정으로 민간에 전령하여 상답 일두락에 이두세를 징수하고 하답 일두락에 일두세를 징수하니 도합 세금이 700여석이고 황무지를 백성에게 경식하도록 허락해서 관가로 문권에서 징수를 아니 한다 하더니 급기야 추수 시에 녹수한 일이요, 하나는 부유한 백성에게 녹탈한 돈이 2만여냥이요, 하나는 그 아버가 일찍이 태인현감을 지낸 고로 그 아버를 위하여 비각을 건조한다 하고 녹렴한 돈이 천여냥이요, 하나는 대동미를 민간에서 징수하기는 정백미로 16두식 준가로 수렴하고 상납할 때는 추미를 섞어서 이익을 취한 일이요, 이외 허다한 조건은 이로 기득할 수 없다.

問 今 所告중의 二萬餘兩 勒奪錢은 何名目으로 行호얏너냐  
문 지금 고한 바 중에 2만여냥을 녹탈한 돈은 어떤 명목으로 행하였느냐?

供 以不孝 不睦 淫行 及 雜技 等事 罪目을 構成호야 行홈이오이다  
답 불효·불목·음핵 및 잡기 등의 명목으로 죄목을 구성해서 행하였다.

問 此等事는 一處의셔 行호야너냐 또한 各處의 行호얏너냐  
문 이러한 일들은 한 곳에서 행하였느냐 또는 각처에서 행하였느냐?

供 此等事는 一處의 止함이 아니요 數十處 되옵나니다  
답 이런 일들은 한 곳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 수십 곳이 된다.

問 數十處 된다호니 其中의 或 知名者 有호냐  
문 수십 곳이 된다 하니 그중에 혹 이름을 아는 자가 있느냐?

供 今 不可記得 姓名호이다  
답 지금은 기득할 수 없는 이름이다.

---

問 此外의는 古阜倅가 何等事을 行하얏너냐

문 이외에는 高부군수가 어떤 일을 행하얏느냐?

供 금의 所陣事件이 다 民間의 貪虐하일 썩더러 築湫時의 他山 數百年 邱木을 勒斫하고 築湫役의 民丁을 一錢도 不給하고 勒役하얏나니다

답 지금 진술한바 사건이 모두 민간에 탐학한 일이나 축보시 타산에서 수백년된 거목을 녹작하고 축보역에 민정을 한푼도 지급하지 않고 녹역하였다.

問 古阜倅 姓名은 誰오

문 高부군수의 이름은 무엇이나?

供 趙秉甲이니다

답 조병갑이다.

問 此等 貪虐事는 古阜倅의만 止하얏나냐 抑或 吏屬輩 作奸은 읍나냐

문 이같이 탐학한 일은 高부군수에만 그치었느냐 혹은 이속배의 작간은 없었느냐?

供 古阜倅가 獨行하얏나니다

답 高부군수가 단독으로 행하였다.

問 汝가 泰仁地의 居生하얏다는디 何故로 古阜의서 起鬧하얏나냐

문 너는 태인 땅에서 살았다는데 어떤 이유로 高부에서 기료하얏느냐?

供 泰仁의 居生하다가 古阜의 移寓하지 數年되나니다

답 태인에서 살다가 高부로 이사한지 수년 된다.

---

問 然則 古阜의 汝宇가 유하냐  
문 그러면 고부에는 너의 집이 있느냐?

供 入於燒灰中하니다<sup>12)</sup>  
답 불타 잿더미가 되고 말았다.

問 汝於其時的 勒徵은 被害가 읍나냐  
문 너는 그때 능징당한 피해가 없었느냐?

供 無有하니다  
답 없었다.

問 一境 人民이 勒斂害을 다 被하는디 汝 獨 無有자 何故오  
문 일경 인민이 능렴의 피해를 입었는데 너만 홀로 없다하니 무슨 까  
닭이냐?

供 學究로 爲業하와 田畝이라 하거시 三斗落 맞게읍는 故니이다  
답 학구로 업을 하기 때문에 전답이라고는 3두락 밖에 없는 까닭이다.

問 汝의 家屬은 幾名인고  
문 너의 가족은 몇 명인가?

供 家屬이 棼六名이니다  
답 가족은 합해서 6명이다.

問 一境 人民이 다 勒斂害을 被하는디 汝 獨 無有者 誠甚 訝惑하다  
문 일경 인민이 다 능렴의 피해를 입었는데 너만 홀로 없다 한 것이  
참으로 심히 의혹이 간다.

---

12) 고부에 있는 집은 안핵사 이용태가 불태웠다.

---

供 矣身<sup>13)</sup>은 朝飯夕粥而已 訝惑할거시 무에잇시리가  
답 나는 아침은 밥, 저녁은 죽인데 늑럼 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問 古阜倅가 到任은 何年何月이고

문 고부군수가 부임한 것은 몇 년 몇 월인가?

供 再昨年<sup>14)</sup> 至・臘 兩月間입니다

답 재작년 동지선달 양월이다.

問 到任이的在 何月이고

문 부임이 꼭 언제 몇 월인가?

供 未詳이오나 居年則 一周年은 되나이다

답 상세히는 알 수 없으나 재임한지 일 년이 된다.

問 到任之初부터 虐政을 卽時 行ᄃ얏나냐

문 부임 초부터 학정을 즉시 행하였느냐?

供 自初로 行ᄃ얏나니다

답 처음부터 행하였다.

問 虐政을 自初로 行ᄃ얏신즉 何故로 卽時 起鬧아니ᄃ얏나냐

문 학정을 처음부터 행하였다면 어떤 이유로 즉시 기료하지 않았느냐?

供 一境 人民이 忍之又忍<sup>15)</sup>ᄃ다가 終末의는 不得고ᄃ야 行ᄃᄃ입니다

답 일경 인민이 참고 또 참다가 끝에는 부득이 하게 행하였다.

---

13) 저는.

14) 1893년.

15) 참고 또 참고.

---

問 汝는 被害함이 읍는디 起鬧는 何故오

문 너는 피해가 없는데 기묘한 까닭이 무엇이나?

供 一身의 害을 爲하야 起包하미 엇지 男子의 事가 되리요 衆民이 冤  
歎하는 故로 民을 爲하야 除害코즈 함이니다

답 일신의 해를 위하여 기포함이 어찌 남자의 일이라 하겠는가? 중민  
이 원탄하는 고로 백성을 위하여 해를 제거하고자 함이다.

問 起包時에 汝가 웃지 主謀가 되얏나냐

문 기포시에 너가 어찌 주모가 되었느냐?

供 衆民이 다 矣身을 推하야 主謀하라 하기의 民言을 依함이니다

답 중민이 다 나를 추대하여 주모하라 하기에 백성의 말을 따랐다.

問 衆民이 汝로 主謀하라 할썩에 汝家에 至하얏더냐

문 중민이 너로 주모하라 할 때에 네 집에 왔었느냐?

供 衆民 數千名이 矣家 近處의 都聚하은 고로 自然이 된 일이을시다

답 중민 수천명이 내 집 근처로 모인 고로 자연히 된 일이다.

問 數千名 衆民이 何故로 汝을 推하야 主謀(하계)하얏느냐

문 수천명 중민이 어떤 이유로 너를 추대하여 주모하게 하였느냐?

供 衆民이 雖曰數千名이오나 皆是 愚蠢農民이요 矣身은 文字을 粗解  
하는 緣故니이다

답 중민이 비록 수천명이나 모두 모두가 글을 모르는 농민으로 나는  
문자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

問 汝가 古阜의 住接時의 東學을 行教치 아니호얏나나  
문 네가 고부에 주접할 때 동학을 가르치고 있지 않았느냐?

供 矣身이 如于童蒙을 訓導호고 東學은 行教호일읍나니다<sup>16)</sup>  
답 나는 어린 아이들을 훈도하고 동학은 가르친 일이 없다.

問 古阜地의는 東學이 無호나  
문 고부에는 동학도들이 없느냐?

供 東學도 有하니이다  
답 동학도들이 있었다.

問 古阜起包時의 東學이 多호야 冤民이 多호나  
문 고부 기포 시에 동학도가 많았느냐 원민이 많았느냐?

供 起包時의 冤民이며 東學이 少호얏스오나 東學은 少호고<sup>17)</sup> 冤民은  
多호니다

답 기포시에 원민이며 동학도가 합하였으나 동학도는 적고 원민은 많았다.

問 起包後이 何事을 行호얏는나  
문 기포 후에 어떤 일을 행하였느냐?

供 起(包)後 陳荒勒徵稅을 還推호고 自官으로 築湫<sup>18)</sup>호거슬 毀破호얏  
나이다

답 기포 후에는 진황능징세를 빼앗아 돌려주고 관으로부터 축보한 것  
을 회파하였다.

---

16) 이 대목에서는 동학과 관계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17) 여기서 ‘少’는 동학의 리더들임을 알 수 있다.

18) 만석보.

---

問 其時는 何時오

문 그때는 어느 때인가?

供 昨年 三月初입니다

답 작년 3월 초이다.

問 其後는 何事을 行호았나나

문 그 후에는 어떤 일을 행하였느냐?

供 其後는 散落호야나니다

답 그 후에는 해산하였다.

問 散落後의는 何事을 因하여 다시 起包호았나나<sup>19)</sup>

문 해산 후에는 어떤 일로 인하여 다시 기포하였느냐?

供 其後의 長興府使 李容泰가 按覈使로 本畵의 來호야 起包호은 人民을 東學이라 通稱호고 列名호야 捕捉호며 其家舍을 燒灰호며 當者가 호면 妻子을 捕호야 殺戮을 行호는고로 다시 起包호았나이다

답 그 후에 장흥부사 이용태가 안핵사로 본읍에 와서 기포한 인민을 동학도로 통칭하고 이름을 나열하여 잡아들이며, 그 집을 불사르고 당사자가 없으면 처자를 붙잡아 살육을 행하는 까닭에 다시 기포하였다.

問 然則 汝의가 自初의 官庭의 一次 呈狀도 아니호야보았나나

문 그런즉 너희가 처음부터 관아에 일차 정장(소장)도 아니하였느냐?

---

19) 3월 20일의 무장기포와 포고문 발표, 3월 25일의 백산결진.

---

供 初次외는 四十餘名이 等訴하다가 捉囚을 被하고 再次 等訴하다가  
六十餘名 驅逐을 當하니이다

답 처음에는 40여명이 소를 올리다가 붙잡혀 갇히고, 재차 소를 올리  
다가 60여명이 쫓겨났다.

問 等訴는 何時인고

문 소를 올릴 때가 언제인가?

供 初次 再昨年 十一月 再次 同年 十二月

답 처음은 재작년 11월, 재차는 동년 12월이다.

問 再次 起包 按覈使로 由하얏시며 汝가 主謀하얏너냐

문 재차 기포는 안핵사 때문이었는데 네가 주도하였느냐?

供 然하니이다

답 그렇다.

問 再次 起包後 何等事을 行하얏나냐

문 재차 기포 후 어떤 일을 행하였느냐?

供 營軍<sup>20)</sup> 萬餘名이 古阜人民을 屠戮하랴는故 不得已하야 接戰하니이다

답 영군 만여명이 고부 인민을 살육하려는 고로 부득이하게 접전하였다.

問 何處의서 接戰하얏나냐

문 어느 곳에서 접전하였느냐?

供 古阜地<sup>21)</sup>의서 接戰하니이다

답 고부에서 접전하였다.

---

20) 전주감영.

21) 4월 7일의 황토현 전투.

---

問 軍器 軍糧은 何處로서 區劃乎아  
문 군기 군량은 어디에서 구획하였는가?

供 軍器 軍糧은 다 民間의서 措辦하니이다  
답 군기 군량은 다 민간에서 조달하였다.

問 古阜 軍器庫軍物 汝가 奪取아니호얏느냐  
문 고부 군기고의 軍물은 네가 탈취하지 않았느냐?

供 其時의은 奪取함이 읍느니다  
답 그 때는 탈취함이 없었다.

問 其時의되 汝가 主謀되얏느냐  
문 그 때에도 네가 주도하였느냐?

供 然하니이다  
답 그렇다.

問 其後의는 기리<sup>22)</sup> 古阜의 在호얏느냐  
문 그 후에는 오래도록 고부에서 있었느냐?

供 長城으로 前往하니이다  
답 장성으로 이동했다.

問 長城서 接戰호얏느냐  
문 장성에서 접전하였느냐?

---

22) 오래도록.

---

供 京軍<sup>23)</sup>과 接戰하니이다  
답 경군과 접전했다.

問 京軍과 接戰하야 孰勝孰敗하얏소  
문 경군과 접전해서 누가 이기고 누가 졌느냐?

供 我軍이 聚食時의 京軍이 大砲로 射擊故로 我軍 死者 四五十名이옵  
기의 我軍이 一齊이 追逐하니 京軍이 敗走하거슬 大砲二座如于 彈  
丸取來하니이다

답 아군이 취식할 때 경군이 대포로 사격하여 아군 사상자가 40~50명  
이기에 아군이 일제히 추축하니 경군이 패주하여 대포 2좌와 탄환  
을 탈취하여 왔다.

問 其時의 兩軍數 各幾何오  
문 그때 양군의 수는 각각 어떠하였느냐?

供 京軍 七百이오 我軍은 四千餘名이니다  
답 경군 7백이고 아군은 4천여명이다.

問 其時 長成 所行事を 一一 直告하라  
문 그때 장성에서 행한 바를 일일이 직고하라.

供 京軍 敗走後 我軍이 倍道하야 全州로 京軍보다 先入하야 守城<sup>24)</sup>하니이다  
답 경군이 패주한 후 아군은 행군 속도를 두 배로 하여 전주에 경군  
보다 먼저 들어가서 수성하였다.

問 其時 監司가 無乎야  
문 그때 감사가 없었느냐?

---

23) 4월 23일 양호초토사흥계훈 중앙군과의 장성 황룡촌 전투.(장태싸움)

24) 4월 27일 전주성 무혈 입성.

---

供 監司는 我軍에 來囘을 見호고 逃走호니이다<sup>25)</sup>

답 감사는 아군이 오는 것을 보고 도주하였다.

問 守城後의는 何事을 行호야느냐

문 수성 후에는 어떤 일을 행하였느냐?

供 其後의 京軍이 隨後호야 完山의 至호야 龍頭峴<sup>26)</sup>留陣호고 城中을 向호야 大砲로 攻撃호다가 慶基殿이 毀傷호故로 此緣由을 京軍의 許及호여더니 京營中의서 曉諭文을 作호야 汝矣所願디로 호자 호옵기여 感激호와 解散<sup>27)</sup>호니이다

답 그 후에 경군이 뒤따라 완산에 이르러서 용두현에 유진하고 성중을 향하여 대포로 공격하다가 경기전이 휘상한 고로 이 연유를 경군에게 허급하였더니 경군 중에서 효유문을 지어서 너희들 소원대로 하자 하기에 감격하여 해산하였다.

問 其後은 何事을 行호고

문 그 후에는 어떤 일을 행하였느냐?

供 其後예는 各其 故家호야 力農호옵고 其餘不恒之徒가 民間에 剽掠호도 이서느니라

답 그 후에는 각기 귀가하여 농사에 힘쓰고 그 남은 불항의 무리가 민간에 표략함도 있었다.

問 不恒之徒 剽掠軍은 汝와 關係호미 無야

문 불항의 무리 표략군은 너와 관계가 없느냐?

---

25) 당시 전주성은 전라 감사 김문현은 파면되어 있었고, 김학진이 후임으로 임명되었으나 아직 부임하지 않고 있었다. 실제 김문현은 농민군이 들어 닥치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공주로 달아난다.

26) 전주 용머리 고개.

27) 27개조의 폐정개혁을 요구하며, 5월 8일에 전주화약.

---

供 關係함이 無합니다

답 관계가 없다.

問 其後에 所行事가 卞시 無하야

문 그 후에 행한 바가 다시 없었느냐?

供 昨年 十月分의 矣身은 全州서 起包하고 孫化中은 光州서 起包하니이다

답 작년 10월에 나는 전주에서 기포하고 손화중은 광주에서 기포하였다.

問 卞시 起包은 何故오

문 다시 기포한 이유가 무엇인가?

供 其後에 聞흔직 貴國이 開化라 稱하고 自初로 一言半辭도 民間에 傳布함이 無하고 또 檄書<sup>28)</sup>도 업시 率兵<sup>29)</sup>하고 우리 都城에 入하야 夜半에 王宮을 擊破하야 主上을 驚動하야하기로 草野의 士民 더리 忠君愛國之心으로 慷慨함을 不勝하야 義旅을 糾습하야 日人 과 接戰하야 此事實을 一次請問코져합니다

답 그 후에 들은즉 귀국(日本)이 개화라 칭하고 처음부터 일언반사도 민간에 전포함이 없고 또, 격서도 없이 솔병하고 우리 도성에 침입하여 야반에 왕궁을 격파해서 주상을 경동하게 하였다 하기로 초야의 선비와 백성들이 충군애국지심으로 강개함을 이기지 못해서 의로운 병사를 규합하여 일본인과 접전하여 이 사실을 일차 청문하고자 함이었다.

問 其後 다시 何事을 行하얏난고

문 그 후 다시 무슨 일을 행하였는가?

---

28) 선전포고.

29) 1894년 6월 21일(양력 7월 23일) 경복궁 쿠데타.

供 其後에<sup>30)</sup> 思量흔즉 公州監營 山阻호고 河을 帶호야 地理가 形勝<sup>31)</sup> 한 故로 此地을 雄據<sup>32)</sup>호야 固守함을 謀한즉 日兵이 容易히 擊拔치 못할로 公州에 入하야 日兵의거 檄을 傳하야 相持호자하야더나 日兵이 만자 公州을 確據하야스니 事勢가 接戰안니할슈 無한 故로 二次 接戰後 萬汝名軍兵<sup>33)</sup>을 点考한즉 所餘者 不過 三千餘名이요 其後 또 二次 接戰後 点考한즉 不過 五百餘名인 故로 敗走하야 金溝<sup>34)</sup>에 至하야 다시 招募하니 數호은 稍增하나 紀律니 업서 다시 開戰호기 極難호더니 日兵니 隨後하호故 二次 接戰하다가 敗走하야 其各散解하니이다 金溝서 解散한 後에은 矣身이 京中裏許을 詳細히 知호자하야 上京호려하다가 淳昌地어서 民兵의게 執被하얏호니다

답 그 후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공주감영은 산이 막히고 강이 둘러싸여 있어 지리가 형승하기 때문에 이 땅을 웅거하여 굳게 지킴을 도모한다면 일병이 쉽게 쳐들어오지 못하고 공주로 들어가 일병과 상대하고자 하였는데 일병이 먼저 공주에 확거하였으므로 사세는 불가피 접전이 없을 수가 없었다. 그런고로 2차 접전 후 1만여명의 군병을 점고한 즉 남은 자가 불과 3천명이요, 그 후 또다시 2차 접전 후 점고한 즉 5백여명에 불과하였다. 그런고로 패주하여 금구에 이르러 다시 초모한즉 수효는 좀 증가하였으나 기율이 없어 다시 개전하기는 극히 곤란하였다. 그런데 일병이 뒤따라와서 2차 접전하여 패주하고 각기 해산하였다. 금구 해산 후 나는 경중(서울)의 속사정을 상세히 알고 상경하려고 하다가 순창 땅에서 민병에 의하여 붙잡혔다.

問 全州를 入할 디에 招募한 軍士는 全羅一道<sup>35)</sup>人民이 都聚함이나 문 전주에 들어간 뒤에 초모한 군사는 전라도 전체 인민이 모였느냐?

30) 일본의 경복궁 쿠데타 이후.

31) 모양이 뛰어나다.

32) 점거.

33) 전봉준장군 휘하 부대.

34) 원평.

35) 한 도, 전체, 모두.

---

供 各道<sup>36)</sup> 人民이 稍多하니이다

답 각도 인민이 조금 많았다.

問 公州에 向할 時에도 各道人民이 稍多한나

문 공주에 향할 때에도 각도 인민이 조금 많았느냐?

供 其時에도 亦然하니이다

답 그 때에도 역시 그러하였다.

問 再次 招募時에 何方策으로 糾습하얏느냐

문 재차 불러 모을 때에는 어떠한 방책으로 규합하였느냐?

供 招募時 忠義之士은 가치 倡義<sup>37)</sup>하라고 揭榜하니이다

답 초모할 때 충의의 선비와 같이 창의하라고 방문을 내걸었다.

問 招募時에 自願者만 糾集하얏느냐 或 勒驅하얏느냐

문 초모할 때 자원자만 규합하였나 아니면 강제로 몰아 모았느냐?

供 矣身이 本來 所率 四千名은 다 自願者요 其外에 各處의 通文한 辭  
意는 若 叱擧를 應치 아니하는 者는 不忠無道라 하니이다

답 내가 거느린 군졸 4천명은 다 자원한 자요 그 외에는 각처 통문으  
로서 사의 만일 거의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는 불충무도라 하였다.

問 昨年 三月의 古阜의서 起包하야 全州로 向하는 間의 幾邑을 經하  
얏스며 幾次<sup>38)</sup> 接戰하얏나냐

문 작년 3월의 고부에서 기포하여 전주로 향하는 동안 몇 읍을 경유  
하였으며, 몇 차례 접전하였느냐?

---

36) 전라도뿐만 아니라 충청·경상·경기 등. \* 이것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은 조선 전체의 사건임을 알 수 있다.

37) 신념, 정당성, 옳은 일이라고 하는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38) 몇 번.

---

供 所經邑은 茂長서 古阜로 由<sup>39)</sup>야 泰仁 金溝을 經<sup>40)</sup>하야 全州을 達하  
라 하다가 營兵萬餘名<sup>39)</sup>이 下來한단을 듯고 扶安<sup>40)</sup>을 가서 古阜의  
邊至 營軍<sup>41)</sup>과 接戰하이다

답 지나간 읍은 무장에서 고부를 거친 후 태인 금구를 지나서 전주로  
오려고 하다가 영병 만 여명이 내려온다는 것을 듣고 부안(백산)으  
로 가서 고부로 돌아와서 영군과 접전하였다.

問 其後의는 何處으로 向하야나나

문 그 후에는 어디로 향하였느냐?

供 井邑으로 高敞 茂長 咸平을 經<sup>42)</sup>하야 長城의 抵하야 京軍<sup>42)</sup>으로 接  
戰하니이다

답 정읍에서 고창, 무장, 함평을 거쳐서 장성의 이르다가 경군과 접전  
하였다.

問 全州의 入함은 何時<sup>43)</sup>며 解散은 何時인고

문 전주에 들어온 것은 어느 때이며 해산은 어느 때이냐?

供 昨年 四月 二十六七日間의 全州의 入하고 五月初六日間<sup>44)</sup>의 解散  
하니이다

답 작년 4월 26~7일간에 전주에 들어오고 5월 6일간에 해산하였다.

問 再次 起包時의는 何處의서 始하얏느냐

문 재차 기포할 때에는 어느 곳에서 시작하였느냐?

供 全州<sup>45)</sup>의서 始하얏는다

답 전주에서 시작하였다.

---

39) 전주감영.

40) 백산.

41) 황토현

42) 장성 황룡촌 전투.

43) 어느 때.

44) 정확하게는 음력 5월 7일.

45) 구체적으로는 삼례역.

---

問 再次 起包時 招募 則 幾許名<sup>46)</sup>인고

문 재차 기포 시에 불러 모은 농민의 숫자는 몇 명 정도였느냐?

供 四千餘名<sup>47)</sup>입니다

답 4천여명 이었다.

問 公州의 至할 時는 幾許名인고

문 공주에 이를 때에는 몇 명이었느냐?

供 萬餘名입니다

답 만 여명이었다.

問 公州서 接戰은 何時인고

문 공주에서 접전은 어느 때이냐?

供 去年 十月 二十三四日間이다

답 작년 10월 23~4일간이다.

問 當初 古阜서 起包時의는 同謀者 皆誰也오

문 당초 고부서 기포 시에는 동모자가 모두 누구였느냐?

供 孫化中 崔慶善 某某人이다

답 손화중, 최경선 등 그 외 몇 사람이다.

問 此外 更無他人乎아

문 그 외에 다시 다른 사람은 없느냐?

供 此三人 外<sup>48)</sup> 多人은 不可勝數외다

답 이 3인 외에 많은 사람들은 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

---

46) 지원자 대부분이 동학도이다.

47) 손화중 대접주가 일궈낸 동학 신자들.

48) 손화중, 최경선, 김덕명.

---

問 四十名 糾合時의 此三人의 止치 아니하였리니 詳言其人하라  
문 사천명을 모을 때에 이 3명에 그치지 아니하였으니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말하라.

供 此外 瓌屑之人 何足言乎잇가

답 그 외에 지도급 인사 외에는 죽히 말 할 바가 무엇이 있겠느냐.

問 昨年 十月 起包時<sup>49)</sup>의는 同謀者가 또 無하냐

문 작년 10월 기포 시에는 동모자가 또 없었느냐?

供 此外의 孫汝玉 趙駿九 등 뿐이외다

답 그 외에 손여옥, 조준구 등 뿐이다.

問 孫化中 崔慶善은 其時의 相關의 無乎아

문 손화중 최경선은 그 때에 상관이 없었느냐?

供 此二人은 光州事가 緊急하다하고 밋쳐 來치 못하니다

답 그 2명은 광주일이 긴급하다하고 하여 미처 오지 못하였다.

問 孫 崔 二人은 光州의 在하야 何事을 行하였느냐

문 손, 최 두 명은 광주에 머물면서 무슨 일을 행하였느냐?

供 此二人은 卽時 公州로 向하다가 日兵이 海路로 來한단 말 듯고 海  
防<sup>50)</sup>하란 고로 光州만 固守하니다

답 그 두 명은 즉시 공주로 향하다가 일병이 해로로 온다는 말을 듣  
고 바다를 막으려고 광주를 지켰다.

---

49) 삼례기포.

50) 바다를 막으려고 함.

## 乙未二月十一日全瑋準再招問目

問 汝가 昨年 三月 起包<sup>51)</sup>之意는 民을 爲하야 害除<sup>52)</sup>함으로 意를 삼  
마다하니 果然耶아<sup>53)</sup>

문 네가 작년 3월에 기포한 뜻은 백성을 위하여 해를 제거함을 뜻으  
로 삼았다 하니 과연 그러하느냐?

供 果然이로쇼니다

답 과연 그러하다.

問 然則內職<sup>54)</sup>居하니며 外任의 幸<sup>55)</sup>안 官員이 다 貪虐耶아

문 그렇다면 내직에 있는 자며 외직에 있는 수령과 관원이 다 탐학이냐?

供 內職의 居하니가 賣官鬻爵으로 事를 삼으나 內外을 勿論하고 다  
貪虐이외다

답 내직에 있는 이가 매관육작으로 일을 삼으나 내외를 물론하고 다  
탐학이다.

問 然則 全羅一道 貪虐하는 官吏만 除하자 起包하얏더야 八道를 一體  
로 하란 意向이냐<sup>56)</sup>

문 그런즉 전라일도의 탐학하는 관리만 제거하고자 기포하였느냐, 팔  
도를 일체로 하려는 의향이냐?

51) 무장기포.

52) 제폭구민.

53) 역사의 발전이란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역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대접하는 것. 자기 책임 역할을 다할 수 있도  
록 구조를 바꾸어 가는 것. (유교적 표현으로는) 참된 의미의 민본이 실현되는 세상.

54) 경반, 서울의 양반.

55) 지방관.

56) 전봉준의 역사의식, 시국인식이 판가름 나는 대목.

---

供 全羅一道 貪虐을 除하고 內職으로 賣爵하는 權臣을 屢逐하면 八道  
가 自然 一體로 될 터이오이다

답 전라일도 탐학을 제거하고 내직으로 매작하는 권신을 쫓아내면 팔  
도가 자연히 일체로 될 것이다.

問 全羅道 監司<sup>57)</sup> 以下로 各邑 守宰가 다 貪官耶아  
문 전라도 감사 아래로 각 고을 수령이 다 탐관이나?

供 十에 八九이다

답 열에 여덟 아홉이다.

問 何事를 指目하여 貪虐이라 하나냐  
문 무슨 일을 가리켜서 탐학이라고 하느냐?

供 各邑 守宰가 다 上納이라 稱하고 或 結<sup>58)</sup>卜에 加斂하며 戶役<sup>59)</sup>도  
橫徵하며 稱饒之民이 잇시면 空然이 構罪하여 錢財勒奪하고 田  
庄<sup>60)</sup>도 橫侵함이 非一非再외다

답 각 고을 수령이 다 상납이라 칭하고 혹 결복에 가렴하며 호역도  
횡징하며 조금 넉넉한 백성이 있으면 공연히 죄를 엮어서 금전과  
재산을 늑탈하고 땅도 횡침함이 비일비재하다.

問 內職으로 賣官者 誰인고

문 내직으로 매관한 자가 누구인가?

供 惠堂<sup>61)</sup> 閔泳駿<sup>62)</sup> 閔泳煥<sup>63)</sup> 高永根 等이외다

답 해당 민영준 · 민영환 · 고영근 등이다.

---

57) 김문현.

58) 토지단위.

59) 노동의 의무. 조선시대 농민의 3대 의무로는 조세·공납·역이 있다.

60) 토지.

61) 병조의 또 다른 별칭.

62) 매천 황현의 오하기문에 이르길 집을 수색해 보니 금으로 만든 황금 송아지가 나왔다고 전해짐.

63) 을사늑약 체결 시 자결.

---

問 此等人에만 止하였느냐

문 이들에게만 그쳤느냐?

供 此外에도 許多하오느 다 記得할 슈 읍느니다

답 이외에도 허다하나 다 기억(기록)할 수 없다.

問 次等人 賣官함은 何以 分明知之耶아

문 이 사람들이 매관함은 어떻게 분명히 알 수 있었느냐?

供 一世 喧藉하야 無人不知외다

답 세상에 떠들썩하여 모르는 사람이 없다.

問 汝가 何計策으로 貪官을 除하랴 하였느냐

문 네가 어떤 계책으로 탐관을 제거하려 하였느냐?

供 別計策이 有함이 아니라 本心이 安民하느디 간절하야 貪虐을 見하  
면 不勝憤歎하야 貪虐此事를 行함이외다

답 별도 계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심이 안민하는데 간절하여 탐학  
을 보면 분탄을 이기지 못해 탐학을 제거하려는 일을 행한 것이다.

問 然則 呈訴<sup>64</sup>하야 稱冤하지 아니 하였느냐

문 그렇다면 진정서를 넣어서 칭원하지 아니 하였느냐?

供 呈營邑 幾次인지 不知외다

문 전라 감영(전주)과 고부 관아에 진정한 것이 몇 차례인지 알 수 없다.

---

64) 법으로 보장된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 등장이라고도 함.

---

問 呈營呈畧은 汝가 親이 行하얏느냐

문 전라 감영과 고부 관아에 진정은 내가 몸소 행하얏느냐?

供 每次 所志는 矣身이 製作하얏스오노 物하기는 冤民으로 하게 하삼  
느니다

답 매차 소장은 내가 제작하얏으나 제출하기는 원민으로 하게 하얏다.

問 然則 廟堂<sup>65)</sup>에도 訴冤하얏느냐

문 그렇다면 중앙 정부에도 원통함을 진정하얏느냐?

供 呈訴하기 無路하와 洪大將이 全州 留陣時의 此緣由로 하얏나다<sup>66)</sup>

답 중앙 정부로 진정할 길이 없어서 홍계훈 대장이 전주에서 유진 할  
때 이런 연유로 써주얏다.

問 其時 守宰가 皆是 貪虐인데 呈訴하면 兪지 聽施함이 잇시랴

문 그 때에 고을 수령이 모두 탐학인데 진정을 하면 어찌 듣고 시정  
함이 잇겠느냐?

供 然이노 呼訴가 無處하와 不得已하야 거그<sup>67)</sup>라도 呈訴하얏느니다

답 그렇기는 하나 호소할 곳이 없어 부득이하게 홍계훈에게라도 정소  
하얏다.

問 呈營呈畧하기는 何時인고

문 전라 감영과 고부관아에 진정한 것은 어느 때인가?

供 昨年 正二三月間이외다

답 작년 정월, 2월, 3월 사이이다.

---

65) 중앙 정부, 의정부.

66) 전주화약의 실체가 확인 되는 부분.

67) 홍계훈.

---

問 正月 以前에는 呈訴하지 아니 하였느냐  
문 정월 이전에는 정소하지 아니 하였느냐?

供 正月 以前에는 古阜 一畝은 民狀而已 大端이 呈訴는 아니 하였느냐  
답 정월 이전에는 고부 한 고을에 민장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정소는 아니 하였다.

問 屢次 營邑을 呈하되 終是 聽施아니하기로 起包하였느냐  
문 여러 번 감영과 고을에 진정하였으나 끝내 청을 들어주지 아니 하기 때문에 기포하였느냐?

供 然矣로소이다  
답 그렇다.

問 汝가 古阜倅에게 被害함이 不多한데 緣何意見으로 此舉를 行하였느냐  
문 네가 고부군수에게 피해를 입은 것이 많지 않은데 어떤 의견 때문에 이 거사를 행하였느냐?

供 世事가 日非하기로 慷然하와 一番濟世(安民)하잔 意見이외다  
답 세상일이 날로 그릇되어 비분강개해서 한 번 세상을 구제하자는 의견이었다.

問 汝로 同謀한 孫化中 崔慶善 等이 다 東學을 酷好<sup>68)</sup>하는 者냐  
문 너와 함께 모의한 손화중 최경선 등이 다 동학을 몹시 좋아하는 자냐?

供 然하니이다  
답 그렇다.

---

68) (교수님 역)목숨 걸고 좋아하는 것, 영어로는 최상급.

---

問 東學이라는 거선 何主意 何道學고

문 동학이라는 것은 무슨 주의이며 무슨 도학인가?

供 守心<sup>69</sup>해야 忠孝로 本을 삼아 輔國安民하잔 일이외다

답 마음을 지켜 충효로 근본을 삼아 보국안민하자는 것이다.

問 汝도 東學을 酷好者耶

문 너도 동학을 몹시 좋아하는 자인가?

供 東學은 守心敬天하는 道故로 酷好하느니라

답 동학은 수심경천하는 도인 까닭에 몹시 좋아한다.

問 東學은 何時에 始하얏느냐

문 동학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供 東學之始는 三十年前에 始이외다

답 동학의 시작은 30년 전에 시작하였다.

問 何人에 始하얏노

문 어떤 사람이 시작하였느냐?

供 慶州居 崔濟愚가 始하얏느아다

답 경주에 살던 최제우가 시작하였다.

問 至今도 全羅道內 東學을 尊崇者 多乎아

문 지금도 전라도 내에 동학을 존중하고 숭배하는 자가 많느냐?

---

69) 자기수양, 영성, 자기구원.

---

供 經亂後<sup>70)</sup>에는 死亾이 相繼하얏 至금은 大減하야나다  
답 난을 겪은 후에는 죽은 자가 계속 있어 지금은 크게 감소하였다.

問 汝가 起包時 所率은 皆是東學이나  
문 네가 기포할 때 거느린 도인들은 모두 동학이냐?

供 所謂 接主는 皆是東學이요 其餘率下는 忠義之士라 稱함이 居多외다  
답 이른바 접주는 모두 동학이요 그 아래 거느린 바는 충의지사라 칭하는 자가 많았다.

問 接主司는 下名色고  
문 접주사는 어떤 직책인가?

供 領率之稱이외다  
답 영솔의 호칭이다.

問 然則 起包時에 軍器 軍糧을 措辦하는 者냐  
문 그러면 기포할 때 군기와 군량을 조달하는 자냐?

供 凡於事에 다 指揮하는 者니다  
답 무슨 일이나 다 지휘하는 자다.

問 接主接司는 本來부터 有하나  
문 접주·접사는 본래부터 있었느냐?

供 既往도 有하고 起包時에 創設함도 有하니다  
답 이전에도 있었고 기포할 때 창설함도 있다.

---

70) 동학농민혁명을 거친 후.

---

問 東學中 領率 名色 接主 接司 뿐이나

문 동학 중에 영술 명색이 접주와 접사 뿐이나?

供 接主 接司 外에도 敎長 敎授 執綱 都執 大正 中正 等 六種<sup>71)</sup>이외다

답 접주·접사 외에도 교장·교수·집강·도집·대정·중정 등 6종이 있다.

問 接主란 거선 平居에는 何事를 行하느냐

문 접주라는 것은 평소에는 무슨 일을 행하느냐?

供 以行之事가 別로 無하나다

답 평소에는 행하는 일이 별로 없다.

問 所謂 法軒<sup>72)</sup>은 何職責고

문 소위 법헌은 어떤 직책인가?

供 職責은 아니요 長老에 別號이나다

답 직책은 아니고 장로의 별칭(해월 최시형)이다.

問 以上 六種之稱은 何事를 行하느냐

문 이상 6종의 호칭은 어떤 일을 행하느냐?

供 敎長 敎授는 愚民을 敎導하니요 都執은 有風力 明紀綱 知經界요  
執綱은 明是非 執紀綱요 大正은 持公平 謹厚員이요 中正은 能直  
言 剛直이라 하나다

답 교장·교수는 어리석은 백성을 가르치고 인도함이요, 도집은 풍력  
있고 기강에 밝아 경계를 알아야 함이요, 집강은 시비에 밝고 기  
강을 잡음이요, 대정은 공평함을 지키고 삼가 후원함이요, 중정은  
능히 직언 강직해야 한다.

---

71) 동학에서는 '육임'이라고 한다.

72) 법의 우두머리.

---

問 接主 接司는 職責이 同하나  
문 접주·접사는 직책이 같으나?

供 接司<sup>73)</sup>는 接主에 指揮을 聽行하는 者니이다  
답 접사는 접주의 지휘를 따라서 행하는 자이다.

問 以上 許多 名色은 誰가 差出<sup>74)</sup>하느냐  
문 이상 여러 가지 명칭(=직책)은 누가 차출을 하느냐?

供 法軒<sup>75)</sup>으로부터 教徒<sup>76)</sup>에 多少을 視하여 第次로 差出하느니라  
답 법현으로부터 교도가 많고 적은 것을 보아 차례로 차출한다.

問 東學中의 南接 北接이 有하다하니 何을 依하여 南北을 區別하느냐  
문 동학 중에 남접·북접이 있다하니 무엇에 의지하여 남북을 구별하느냐?

供 湖以南은 南接이라 稱하고 湖中은 北接이라 稱하느니라<sup>77)</sup>  
답 호이남은 남접이라 칭하고 호중은 북접이라 칭한다.

問 昨年 起包時에 以上 各種 名色等의거 何事件을 指揮하였느냐  
문 작년 기포 시에 이상 각종 명색(명칭, 직책) 등에게 무슨 일을 지휘하였느냐?

供 各其 職掌<sup>78)</sup>으로 行 하였느니라  
답 각기 직장대로 행하였다.

---

73) 접사는 접주의 비서실장.

74) 임명, 조선시대에는 임명을 '차하'로 썼음. 임명은 근대적 용어이다.

75) 해월 최시형.

76) 본래 '도인' 이라는 말을 많이 썼음.

77) 남접과 북접은 전봉준 장군의 편의상 구분이지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박맹수 교수님)

---

問 各其 職掌은 다 汝의 指揮을 聽行하였느냐  
문 각기 직장(=직무 분담)은 다 너의 지휘를 듣고 행하였느냐?

供 矣身이 다 指揮하였느니라  
답 내가 다 지휘하였다.

問 修心敬天하는 道을 엇지 東學이라 稱하느냐  
문 수심경천하는 도를 어찌 동학이라 칭하느냐?

供 吾道은 東에 出한 故로 東學이라 稱하나 自初 本意은 始作한 人이  
分明히 知得할 거시오 矣身은 他人의 稱함을 隨하여 稱할 畧이외다  
답 우리의 도는 동에서 나왔기 때문에 동학이라 칭하나 원래 본래의  
뜻은 시작한 사람이 분명히 알 일이지만 나는 다른 사람이 부르는  
것을 따를 뿐이다.

問 東學에 役人하면 怪疾을 免한다 하니 然한냐  
문 동학에 들어가면 괴질을 면한다 하니 과연 그러하냐?

供 東學書中云 三年 怪疾이 在前한니 敬天守心하여스 免한다 하여느니라  
답 동학 글 중에서 3년 괴질이 앞에 있으니 경천수심하면 면한다 하였다.

問 東學의 八道에 다 傳布하여느냐  
문 동학을 8도에 다 전포하였느냐?

供 五道<sup>78)</sup>은 다 行教하여스나 西北 三道<sup>79)</sup>은 알 슈 업나이다  
답 5도는 다 행하여 가르쳤으나 서북 3도는 알 수 없다.

---

78) 충청, 전라, 경상, 경기, 강원.

79) 평안, 함경, 황해.

---

問 東學을 學한 則 病을 免한은 外에 他利益은 無한나  
문 동학을 배운즉 병을 면한 뒤에 다른 이익은 없느냐?

供 他利益은 없느이다

답 다른 이득은 없다.

問 昨年 三月 起包時은 貪官을 除한 後에 또 무슨 注意잇느냐  
문 작년 3월 기포시에 탐관을 제거한 후에 또 무슨 일을 하려고 하였느냐?

供 他 注意 없느이다

답 다른 뜻은 없었다.

問 昨年 洪大將의게 節目<sup>80)</sup>呈한 거시 잇다 하니 果然耶  
문 작년 홍대장에게 절목을 제출한 것이 잇다 하니 과연 그러하냐?

供 然하니이다

답 그러하다.

問 節目呈한 後에 貪官을 除한 徵驗이 有하더냐  
문 절목을 제출한 후에 탐관을 제거하는 징험이 있더냐?

供 別 徵驗이 無하이니다

답 별 징험이 없었다.

問 然則 洪大將이 罔民함이 아니냐  
문 그러한즉 홍대장이 백성을 속인 것이 아니냐?

---

80) 폐정개혁안 27개조.(정치·경제·사회·종교)

---

供 然하니이다

답 그러하다.

問 然則 百姓이 다시 어지 稱冤이 엄셔느냐

문 그런즉 백성이 다시 어찌 칭원이 없었느냐?

供 洪大將은 其後에 在京하니 어지 다시 稱冤할요

답 홍대장은 그 (전주화약)후에 서울에 있었으니 어찌 다시 칭원하리오.

問 再次 起包<sup>81)</sup>은 日兵이 犯闕하였다한 故로 再舉하였다 하니 再舉한 後에는 日兵의거 무슨 舉措을 行하라 하여느냐

문 재차 기포는 일병이 궁궐을 범하였다고 하였기 때문에 재거하였다 하니 재거한 후에는 일병에게 무슨 조치를 행하고자 하였냐?

供 犯闕한 緣由을 請問코지 하미니다

답 범궐한 연유를 따져 묻고자 하였다.

問 然則 日兵이며 各國人이 京城에 留在하는 者을 驅逐하라 하느냐

문 그러한즉 일병이며 각국인이 경성에 머무르고 있는 자를 모두 쫓아내고자 하였냐?

供 그러미 아니라 各國人은 다만 通商만 하는데 日人은 率兵하여 京城에 留陣하는 故로 我國境土를 侵掠하는가 疑訝함이니다<sup>82)</sup>

답 그러미 아니라 각국인은 다만 통상만 하는데 일인은 군대를 일으켜 경성에 유진하는 고로 우리나라의 영토를 침략하려는 것으로 의심하였다.

---

81) 2차 기포, 삼례기포.

82) 전봉준은 국제 만국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

問 李健永이란 人은 知乎아  
문 이견영이란 人을 아느냐?

供 暫時 逢着하얏느다  
답 잠시 만난 적이 있다.

問 逢着時에 何言인 有하나  
문 만났을 때에 무슨 말이 있었느냐?

供 召募使<sup>83)</sup>라 稱하기로 矣身 言하기를 召募使면 何處던지 召募營을  
設始하거시오 우리와는 相關업다 하니 그만 錦山으로 前往하더니다  
답 소모사라 칭하기로 내가 말하기를 소모사면 어디든지 소모영을 설  
치 할 것이요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하니 그만 金산으로 떠났다.

問 何處에서 逢着고  
문 어느 곳에서 만났느냐?

供 參禮驛에서 逢着하니이다  
답 삼례역에서 만났다.

問 其時에 李健永를 逢하다하니 何處로서 來하얏다 하더냐  
문 그 때에 이견영을 만났다 하니 어디서 왔다고 하더냐?

供 京城으로 來하얏다 하더니다  
답 경성에서 왔다고 하였다.

---

83) 일본군 몰래 보낸 소모사(진짜 소모사)도 있었고 일본군도 알고 있는 소모사(해산 명령)도 있었다. 여기서 이견영은 노출된 소모사였다.

---

問 誰가 遣하였다 하더냐  
문 누가 보냈다고 하더냐?

供 政府에서 遣하였다 하더니 遣後 四五日에 聞之則 召募使을 假稱이  
라 하여 拿命이라 有하다 하더니다  
답 정부에서 보냈다고 하더니 그 후 4~5일 뒤에 들은 즉 소모사를 거  
짓 칭했다고 하여 잡아 올리라는 명이 있었다고 하였다.

問 召募使 可據文蹟이 有하더냐  
문 소모사라 증거 할 만한 문서가 있더냐?

供 可據文蹟을 見치 못하니다  
답 증거 할 문서를 보지 못하였다.

問 其時 汝의 徒黨이 幾名인고  
문 그때 너의 도당이 몇 명인고?

供 數十餘名이외다  
답 수천여명 이었다.

問 其外에는 召募使라 稱하고 起包하라 勸하는 人이 有하더냐  
문 그 외에는 소모사라 칭하고 기포하라 권하는 사람이 없더냐?

供 그런 人이 有하더니다  
답 그런 사람이 없었다.

問 宋廷燮을 知乎아  
문 송정섭을 아느냐?

---

供 忠淸道 召募使란 所聞만 聞하니이다  
답 충청도 소모사란 소문만 들었다.

問 再次 起包時 崔法軒에게 議及<sup>84)</sup>하얏느냐  
문 재차 기포 시 최법헌에게 의급하였느냐?

供 議及하이 無하이니다  
답 의급함이 없었다.

問 崔法軒은 東魁어늘 東黨糾습하는데 웃지하여 議及하지 아니 하얏느냐  
문 최법헌은 동학의 괴수인데 동당 규합하는데 어찌하여 의급하지 아  
니 하였느냐?

供 忠義는 各其 本心이니 何必 法軒에게 議及後에 此事을 行하리오  
답 충의(=보국안민)는 각기 본심이니 하필 법헌에게 의급 후에 이 일  
을 행하리오.

問 昨年 八月<sup>85)</sup>에는 汝가 何處에 在하얏노  
문 작년 8월에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供 泰仁 矣家에 在하니이다  
답 태인의 내 집에 있었다.

問 其餘 徒黨은 다 何處에 在하얏노  
문 나머지 도당은 다 어디에 있었느냐?

供 各其 本家에 在하니이다  
답 각기 본 집에 있었다.

---

84) 논의, 토의, 회의. 이 말은 개화기 이후에 들어온 말이다.

85)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한 직후.

---

問 忠淸道 天安地方<sup>86)</sup> 汝의 徒黨이 有하나  
문 충청도 천안지방에 너의 도당이 있느냐?

供 其處의는 徒黨이 無하니이다  
답 그곳에는 도당이 없다.

---

86) 이 당시 일본인 6명이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다.

## 乙未二月十九日全瑋準三招問目

問 汝가 日前 所告에 宋喜玉을 不知라하니 喜玉二字가 是名耶 號耶  
문 네가 일전에 고한 바에 송희옥을 모른다고 하니 희옥 두 글자가  
이름이냐 호냐?

供 喜玉은 是名也 柒瑞은 是字也외다

답 희옥은 그자의 이름이요 칠서는 그자의 자이다.

問 與宋喜玉으로 參禮驛에서 既與之同謀則 其名字을 焉得不詳乎아<sup>87)</sup>

문 송희옥과 더불어 삼례역에서 함께 모의를 하였는데 즉 그 이름과  
자를 어찌하여 상세히 모르는가?

供 宋喜玉은 本是 虛妄之類 忽往忽來<sup>88)</sup> 實所未詳이오다

답 송희옥은 본시 허망한 사람으로 홀연히 왔다 갔다 하니 실제 거처  
를 상세히 알 수 없다.

問 宋喜玉則聞是全羅一道 都執綱이요 且聞方汝로 有係戚誼而 今聞所  
告則 專事粧撰<sup>89)</sup>不直實告者有涉可疑而況汝罪之輕重이 不在於宋喜  
玉之粧撰喜玉之罪案亦不在於汝暗護而一向抵賴是誠何心고

문 송희옥은 소문에 의하면 전라일도의 도집강이라 들었고 또 너와  
더불어 친척의 관계이니 지금 고하는 것은 오직 허물을 감추려  
하고 숨기는 것이니 바르게 실고하지 않는 것이 의심이 되며 더  
욱이 네 죄의 경중은 송희옥의 장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희  
옥의 죄안이 네가 숨겨 보호하는 것이 아니니 비록 오로지 믿어  
야 하는데 이는 진실로 어떤 마음에서냐?

87) 사실은 모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 것이다.

88) 동해 번쩍 서해 번쩍.

89) 粧撰 : 허물을 감추려고 숨기는 것.

供 俄告之知 是者宋也 本是 浮荒之類也 向日領事館 捧供時 領事出示  
一書乃喜玉之筆也 其書稱以雲峴邊<sup>90)</sup> 相通故 私自默量則 渠之偽造  
此言이 似可借力於時局而做此不近之說實非男子之事 亦是 冒瀆尊  
嚴<sup>91)</sup>空惹時議故 暫此粧撰이외다<sup>92)</sup>

답 조금 전에 고한 바와 같다. 송은 본시 부황의 무리로 지난번 일본  
영사관 문초에 답변할 때 영사가 하나의 문서를 내어 보이는데 희  
옥의 필적이다. 그 글에 이르기를 대원군과 상통한 것으로 되어  
내가 스스로 생각해 보니(속으로 생각해 보니) 그가 이 말을 위조  
하여 시국의 힘을 빌리려 한 것으로 이 위조한 말(거짓말)을 만드  
니 실로 남자의 일이 아니며 역시 존엄을 모독하고 헛되이 분분한  
논쟁을 일으키는 것이 때문에 잠깐 이를 꾸며서 말한 것이다.

問 男子之說 雖百言 其實然若有一言之許則 百言皆許矣 以此推之則 昨  
稱耶不知所不行者 豈非皆許耶

문 남자의 말은 비록 백마디 말을 하더라도 사실을 말해야 할 것이니  
만약 한마디 말에 거짓이 있으면 백마디 말을 다 속인 것이다. 이  
로 미루어 본즉, 어제는 모른다고 한 것이나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어찌 다 속인 것이 아니겠는가?

供 以心神之昏迷로 果有所錯誤외다

답 마음과 정신이 혼미한 관계로 과연 착오한 바가 있다.

90) 윤현변 : 흥선대원군을 말 함.

91) 윗사람, 대원군이나 국왕을 말함.

92) 이 대목에서 전봉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인정된다. 대원군과 관련된 것과 송희옥과 관련된 것이다. 사실 송희옥은 전봉준의 오른팔이며 전라 일도의 도집강이다. 송희옥을 추궁하면 동학농민혁명의 전모나 각 지역의 농민군 지도자의 신상이 드러나기 때문에 희생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해 전봉준이 혼자 다 짊어지고 가려고 한 것이다.

問 宋喜玉 甲午 九月書에 有云 昨暮<sup>93)</sup>又有二員秘密下來而詳考顛末則 果壓於開化邊先護曉諭後 有祕奇云此 是送誰之書亦是汝所不知之事 乎아 向日汝之所告에 昨年 十月<sup>94)</sup> 再起事 日人之率兵入闕<sup>95)</sup>也 不知利害之所在故爲我臣民者 不聽一刻安心乃有此乃舉云則 焉之大院 位之從後 秘寄亦暗合於汝之再起乎

문 송희옥은 갑오 9월 글에 말하기를 지난번 두 명이 비밀리 내려와서 그 전말을 자세히 돌아보니 즉 과연 개화변에 실증이 나서 먼저 효유로 보호하면 뒤에 비기(밀서, 밀지)가 있을 것이다 했는데 이는(밀서는) 누구의 글을 보내온 것인지 역시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할 것인가? 지난 너의 고한 바에 따르면 작년 10월 재기한 것은 일인이 군대를 거느리고 입궐(=침략)하여 이해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고로 우리가 신민이 되어 감히 한시도 안심할 수가 없어 이 거의를 한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즉 대원군의 뒤를 따른 밀서(=밀지, 비벌 편지)가 있는 것을 알아서 역시 너의 재기와 암합(연계, 합심)한 것이 아닌가?

供 這問雖或 有此等輩之來往이라도 素不知其面則 重大事件을 何以議及<sup>96)</sup>乎아 是故로 跡涉殊常者 一不接面이외다

답 비록 그와 같은 무리들이 내려왔다는 소문이 있을지라도 평소에 그 내면을 알지 못하는데 중대한 사건을 어떻게 논의하겠는가? 그런고로 행적이 수상한 자는 한 번도 대면한 적이 없다.

問 南原府使 李用憲 長興府使 朴憲陽 被害는 此皆誰之所行乎

문 남원부사 이용헌, 장흥부사 박헌양의 피해는 모두 누구의 소행이냐?

供 李用憲是金開男之所爲而 朴憲陽<sup>97)</sup>은 不知被害於何人이외다

답 이용헌은 김개남이 한 바이고 박헌양은 누구로부터 피해를 입은지 모르겠다.

93) 8월 말경으로 추측.

94) 양력.

95) 침략.

96) 의급 = 논의.

97) 박헌양은 7월달 부임 후 재지 유생과 벽사역졸과 결탁을 하여 대대적인 동학 탄압을 진행하였다. 이것에 대한 대대적 반격 과정에서 98명의 벽사역졸들이 목숨을 당하는데, 이때 전봉준은 공주에서 격전(우금치 전투)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 잘 알지 못하였다.

問 恩津居金元植<sup>98)</sup>之被害는 是誰之所爲乎

문 은진에 있던 김원식의 피해는 누구의 소행이냐?

供 公州 東魁 李裕相之所爲而 無關於矣身이외다

답 공주의 동학 괴수 이유상의 소행으로 나오는 무관하다.

問 昨年 再起包時 自廟堂<sup>99)</sup>下送曉諭文을 汝가 不見乎아

문 작년 다시 기포할 때 묘당(왕실)에서 내려보낸 효유문을 네가 보지 못하였는가?

供 大院位 曉諭文則 得見이요 廟文曉諭文은 不見이외다<sup>100)</sup>

답 대원군이 내려보낸 효유문은 보았으나 묘당에서 보낸 효유문은 보지 못했다.

問 雖不見廟堂曉諭文字而 既見大院位曉諭文則 時事을 可知而不計事機之如何 擅自動民 無端惹鬧 陷民於水火者 是豈民臣民可爲之事乎

문 비록 묘당에서 보낸 효유문을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미 대원군이 보낸 효유문을 봤다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 것인데 일이 되어가는 기틀의 여하를 생각하지 않고 멋대로 백성들을 선동해서 무단으로 난리를 야기해서 백성들을 물불에 빠뜨렸으니 이것이 어찌 신민으로서 가히 행할 일이나?

供 不詳裡許 而擅自動民果 是做錯이외다<sup>101)</sup>

답 깊은 내막을 알지 못해 멋대로 백성들을 선동하였으니 이는 주착이었다.

98) 오늘로 말하면 경찰 서장 급.(영장, 지방의 포도대장)

99) 임금을 호칭하는 별칭.

100) 이 무렵 고종은 허수아비였다. 묘당의 효유문은 공문서(해산하라, 생업으로 돌아가라)이고, 대원군의 효유문은 밀지·밀서(봉기하라)이다. 효유문에는 두 종류가 있다.

101) 동학의 세상이 돌아오니 이 기회를 틈타 사사로이 자기의 원한이나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무리들이 생겨남·불항무뢰, 조경달의 『이단의 민중 반란』에서 전봉준 역시 백성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우민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덕망가적 질서관’에 의해 봉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동학을 정통동학(최시형)과 이단동학(전봉준)으로 분리하여 바라보았다.

當在上 乙未三月初七日全瑋準四次問目 日領事問<sup>102)</sup>

問 汝之名號非一再是幾何

문 너의 이름이나 호는 하나 둘이 아니니 도대체 몇 개인가?

供 全瑋準一而已

답 전봉준 하나이다.

問 全明淑是誰之姓名耶

문 전명숙은 누구의 이름이냐?

供 矣 身之字也

답 나의 자이다.

問 全泉豆誰也

문 전녹두는 누구인가?

供 時人之指名非 矣 身之所定名字也

답 세상 사람들이 가리키는 이름이지 내가 정한 이름은 아니다.

問 汝有別號乎

문 너는 다른 호가 있느냐?

供 無也

답 없다.

問 此外亦無別號及小字之稱號乎<sup>103)</sup>

문 이 외 또 별호 및 소자의 칭호가 있느냐?

102) 일본 측의 관심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당시 조선의 자주권 침해(치외법권) 상황 등을 알 수가 있다.

103) 전봉준의 가명은 1893년 보은집회, 금구·원평집회 때에는 '김봉집'이라는 가명을 쓰다가 집강소 통치기 때에는 '김봉균'이라는 가명을 썼다.

---

供 無也  
답 없다.

問 汝之每寄書<sup>104</sup>於人也以名填之乎以字填之乎  
문 너는 늘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이름을 쓰느냐 자를 쓰느냐?

供 以名填之  
답 이름으로 쓴다.

問 汝於昨年十月再起之日字卽何日  
문 너는 작년 10월에 재기포 일은 어느 날인가?

供 似是十月十二日間而未詳  
답 아마도 10월 12일간인데 자세히 모르겠다.

問 參禮再起之前汝在何處  
문 삼례 재기포 전에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供 在矣家<sup>105</sup>  
답 내 집에 있었다.

問 汝於全州招討兵接戰解散之後汝向何處  
문 너는 전주 초토병과 접전하고 해산한 후 너는 어디로 향하였느냐?

供 行遍十餘邑勸以歸化<sup>106</sup>卽歸矣家<sup>107</sup>  
답 10여 읍을 거치면서 귀화하라 권하고 곧 나의 집으로 돌아왔다.

---

104) 기서 : 편지

105) 태인.

106) 귀화 : 반대세력과 행동강령을 어기는 세력 등을 일컫는다. 여기서는 농민·반농민·관 등 포괄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107) 집강소 체제기.

---

問 自全州解散在何日

문 전주에서 해산한 날은 어느 날인가?

供 五月初七八日間

답 5월 7~8일 간이다.

問 自全州解散時初到邑卽何邑<sup>108)</sup>

문 전주 해산한 후 제일 먼저 이른 읍은 어느 읍인가?

供 始自金溝至金堤泰仁等地

답 금구를 거쳐 김제·태인 등지에 이르렀다.

問 初到金溝在何日

문 처음 금구로부터 이른 날은 어느 날인가?

供 金溝境則暫經過路而五月初八九日間到金堤初十日間到泰仁

답 금구는 잠시 지나가는 길에 거쳤고 5월 7~8일 사이에 김제에 이르  
고 10일 사이에 태인에 이르렀다.

問 到泰仁後所經者皆何邑也

문 태인에 이른 후에 거친 고을은 모두 어디인가?

供 長城潭陽淳昌玉果南原昌平順天雲峰所經後卽入矣家

답 장성·담양·순창·옥과·남원·창평·순천·운봉을 거쳐 내 집으  
로 돌아왔다.

問 歸家在何月何日

문 집에 돌아온 것은 몇 월 며칠인가?

---

108) 전주화약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로는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뿌리는 '동학농민혁명'이라는 민의 성장이다. 민이 관  
을 상대로 협상 테이블에 자리한 것만으로도 당시 엄청난 사건이었다.

---

供 七晦八初間

답 7월 그믐에서 8월 초 사이이다.

問 遍行列邑之時汝獨行乎有同行者乎

문 각 고을을 돌아다닐 때 혼자 다녔느냐 동행자가 있었느냐?

供 騎率竝有二十餘人

답 기병 20여명을 거느리고 다녔다.

問 其時崔慶善同行乎

문 그때 최경선도 동행하였는가?

供 然矣

답 그렇다.

問 孫化中亦同行乎

문 손화중 역시 동행하였는가?

供 孫則不同行

답 손화중은 동행하지 않았다.

問 自全州解散時孫化中向何處

문 전주에서 해산한 후 손화중은 어느 곳으로 향하였느냐?

供 其時孫則遍行右道<sup>109)</sup>列邑勸以歸化

답 그때 손화중은 우도 여러 고을을 돌아다니면서 귀화를 권하였다.

---

109) 탁지지에 수록된 전라우도의 고을은 전주·익산·김제·고부·금산·진산·여산·만경·임피·금구·정읍·흥덕·부안·옥구·용안·함열 등의 31개 고을이며, 전라좌도의 고을은 남원·담양·순창·용담·창평·임실·장수·곡성·옥과·운봉·진안·무주·광주 등의 24개 고을이었다. 전라 좌·우도는 1892년(고종 33)에 남·북도의 체제로 바뀌었다.

---

問 孫之自全州解散與汝同日乎

문 손화중이 전주에서 해산한 것은 너와 더불어 같은 날인가?

供 然矣

답 그렇다.

問 自全州解散後汝不見孫乎

문 전주에서 해산한 후 너는 손화중을 보지 못하였느냐?

供 四五朔間不相遇<sup>110)</sup>

답 4~5개월 동안 서로 만나지 못했다.

問 四五朔後逢於何處

문 4~5개월 후 어디서 만났느냐?

供 八晦間帶有巡相<sup>111)</sup>之令前往羅州勸解民堡<sup>112)</sup>之歸路至長城地始相見

답 8월 그믐경 순상의 명령을 지니고 먼저 나주로 가서 먼저 민보군의 해산을 권하고 돌아오는 길에 장성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만났다.

問 孫之逢着後有所向議者乎

문 손화중을 만난 후에 앞으로의 일을 의논한 적이 있느냐?

供 其時矣身謂以方自巡相別有所囑事偕到營門爲好之意議及<sup>113)</sup>

답 그때 나는 순상으로부터 별도로 부탁받은 바가 있으니 같이 전라 감영에 가는 것이 좋겠다는 뜻으로 의논하였다.

問 然則孫答以何辭乎

문 그러한즉 손화중은 뭐라 대답하였느냐?

---

110) 남원대회 때 만난 적이 있으며, 또 나주 목사 민종렬을 설득할 때에도 만난 적이 있다.

111) 순상 : 전라감사.

112) 민보 : 반농민군으로 민보군·수성군·유해군 등이 있다.

113) 관민상화.

---

供 稱以方在病中不能偕往待治瘳後追至云耳

답 지금은 병중에 있어 같이 갈 수가 없으니 병이 나은 것을 기다려  
뒤따라 가겠다고 말했다.

問 此外無他所議者乎

문 이외에 다른 것을 의논한 것은 없었느냐?

供 然矣

답 그렇다.

問 日兵之犯 闕<sup>114</sup>聞於何處何時<sup>115</sup>

문 일병의 범궤는 언제 어느 곳에서 들었느냐?

供 七月間始聞於南原地

답 7월경 남원 땅에서 들었다.

問 然則行遍列邑歸化之時得聞此說乎

문 그러한즉 열읍을 돌아다니고 귀화할 때 이 소리를 들었느냐?

供 係是塗聽塗說<sup>116</sup>

답 이는 도청도설에 의한 것이다.

問 得此說後起衆擊日之事始議於何地

문 이 말을 듣고 난 후 민중을 일으켜 일본을 치는 일을 의논한 곳은  
어디인가?

供 參禮驛

답 삼례역이다.

---

114) 범○궤 : 왕과 관련된 표현은 한 글자를 띄어 쓴다.

115) 경복궁 쿠데타 : 양력 7월 23일, 음력 6월 21일.

116) 도청도설 : 유언비어.

---

問 特於參禮議是事者乎

문 특별히 삼례역에서 이 일을 의논했던 말인가?

供 全州府中之外邸幕稍多者莫如參禮故耳

답 전주부 부근 외에 주막이 얼마간 많은 곳은 삼례 만한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問 至參禮之前或無都會地乎

문 삼례에 이르기 전에 혹 도회지가 없었느냐?

供 至院坪經宿一夜直至參禮

답 원평에 이르러 하룻밤 묵고 곧 삼례에 이르렀다.

問 自家始發在何日

문 집으로부터 출발한 날은 언제인가?

供 十月初旬間

답 10월 초순경이다.

問 汝向參禮時同行者誰也

문 네가 삼례로 향할 때 동행자는 누구였느냐?

供 無同行者

답 동행자는 없었다.

問 行路之中亦無相遇同行者乎

문 길을 가던 중 역시 만난 사람이 없었느냐?

---

供 無也

답 없었다.

問 其時崔慶善非同行乎

문 그때 최경선은 동행하지 않았느냐?

供 崔則追後來到

답 최경선은 추후에 도착했다.

問 至參禮會於誰家耶

문 삼례에 이르러서는 누구 집에 모였느냐?

供 是邸幕耳

답 주막에서 모였다.

問 參禮地素有熟親之家乎

문 삼례 땅에는 본래 친구의 집이 있었느냐?

供 初無熟親者耳

답 처음에는 친한 친구가 없었다.

問 參禮戶數爲幾何

문 삼례의 호구 수는 얼마나 되느냐?

供 百餘戶

답 1백여 호이다.

---

問 汝之所居近處必不無百餘戶之村庄而特會於此何也

문 네가 사는 근처에도 반드시 1백여 호의 촌장이 없지 않을 터인데  
특히 이곳에서 모인 것은 무엇 때문이냐?

供 此地道路四通<sup>117)</sup>兼以驛村故耳

답 이곳은 도로가 사방으로 통하고 겸하여 역촌이기 때문이다.

問 崔至參禮後同留幾日

문 최경선이 삼례에 온 후에 며칠을 같이 머물렀느냐?

供 五六月日同留後直向光羅等地

답 5~6일 머문 후 곧바로 광주·나주로 향했다.

問 因何向光羅地也

문 어떤 것 때문에 광주·나주로 향하였느냐?

供 以起包事

답 기포의 일 때문이었다.

問 崔之光羅行是汝所使乎

문 최경선이 광주·나주에 간 것은 네가 시킨 것이냐?

供 不是 矣身 所使而只緣渠之於光羅曾多親知易於起包耳<sup>118)</sup>

답 내가 시킨 것이 아니다. 최경선의 인연이 광주·나주 지방에 많은  
친지가 있어 기포하는데 용이했기 때문이다.

---

117)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사람이 모이고 정보가 모인다.

118) 광주 나주 쪽에 최경선의 근거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최경선의 연구가 제대로 밝혀 있지 않다. 나  
중에 최경선은 화순 쪽으로 피신했다가 체포 되었다. 화순 쪽에도 연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問 其時參禮都會時東徒之最著名者誰也

문 2차 기포 때 삼례도회에 모였을 때 동도의 가장 저명한 자는 누구이냐?

供 金溝趙鎮九全州宋一斗崔大奉幾人是所謂最著名者而其餘許多者今難悉記

답 금구의 조진구, 전주의 송일두·최대봉 몇 사람이 가장 저명한 자였으나 그 나머지 허다한 사람은 기억하기 어렵다.

問 其時參禮所謂義兵<sup>119)</sup>之會者爲幾何

문 2차 봉기 때 삼례에서 소위 의병으로 모인 자는 얼마나 되느냐?

供 四千餘名<sup>120)</sup>

답 4천여 명이다.

問 帶是衆始向何處

문 이 군중을 거느리고 처음 어느 곳으로 향하려고 하였느냐?

供 始向恩津論山

답 처음 은진·논산으로 향하였다.

問 抵論山何日

문 논산에 도착할 날은 언제이냐?

供 今不可詳知<sup>121)</sup>

답 지금은 자세히 알 수가 없다.

問 豈無略記之理乎

문 어찌 대략이라도 알지 못한단 말이냐?

---

119) 의병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한다. 전봉준 스스로도 의병이라는 말을 썼고 심문하는 쪽에서도 의병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2차 봉기는 확실히 의병적 성격이 있다.

120) 이때의 4천여 명은 손화중이 길러낸 사람들이다.

121) 대체로 음력 10월 12~15일 경이다.

---

供 假量十晦間

답 대체로 10월 그믐쯤 된다.

問 至論山行何事

문 논산에 도착해서 무슨 일을 했느냐?

供 至論山後亦有廣募之事

답 논산에 도착한 후에 널리 병사를 모집하는 일을 했다.

問 自是處更向何地

문 그곳으로부터 다시 어디로 향하였느냐?

供 直向公州

답 공주로 직행했다.

問 抵公州何日

문 공주에 도착한 것은 언제이냐?

供 似是至月初六七日間而未詳耳

답 그달 초 6~7일 같은데 자세히는 모르겠다.

問 至公州後行何事

문 공주에 도착한 후에 무슨 일을 하였느냐?

供 未至公州而接戰<sup>122)</sup>竟爲敗北耳

답 공주에 이르지 못하고 접전하여 결국 패하고 말았다.

問 汝之每寄書於人也必以親書乎抑或代書乎

문 너는 매번 다른 사람들에게 편지를 쓸 때 반드시 친서로 하는가  
아니면 대서로 하느냐?

---

122) 우금치 전투.

---

供 或親書或代書

답 혹 친서로 혹 대서로 한다.

問 或代書時必填以汝之圖書乎

문 혹 대서시에 반드시 너의 도장을 찍었느냐?

供 皮封<sup>123)</sup>則多填以圖書而或多不用是例

답 피봉에는 도장을 찍을 때가 많으나 혹 그렇지 않을 때도 많다.

問 汝在參禮時汝之寄書於人者甚多而此皆親書乎抑代書

문 네가 삼례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부친 글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친서이냐? 대서이냐? 대서로 할 때는 너의 도장을 찍었느냐?

供 皆以通文寄之而不以私簡<sup>124)</sup>唯有孫化中處寄書耳

답 모두 통문으로 부치고 사간은 하지 않았으나 오직 손화중에게만 부친 글은 있다.

問 初無一字私簡之寄於人乎

문 처음부터 다른 사람에게 일자 사간도 부치지 않았느냐?

供 若見其簡則可知而今未詳耳

답 만약 그 서간을 보면 알 수가 있으나 지금은 자세히 모르겠다.

問 領事出簡示之曰此是汝之親書乎代書乎

문 영사가 서간을 내어 보이며 말하기를 이것은 친서이냐 대서이냐?

供 代書

답 대서이다.

---

123) 곁 봉.

124) 사적인 편지.

---

問 使誰代書乎

문 누구를 시켜서 대서했느냐?

供 似是接主之筆而今未詳其人

답 아마도 접주의 필적인 것 같은데 지금은 그 사람을 자세히 모르겠다.

問 汝曾使崔慶善代書之事乎

문 너는 일찍이 최경선으로 하여금 대서케 한 일이 있느냐?

供 崔非能書者

답 최경선은 글을 잘하지 못한다.

問 此札自參禮出者乎

문 이 편지는 삼례로부터 보낸 것이냐?

供 然矣

답 그렇다.

問 此札月日明是九月十八日則焉得出於十月參禮之會乎

문 이 서찰의 월일은 분명히 9월 18일인데 어찌 10월 삼례에서 만나  
자고 한 것이냐?

供 前供以十月者似是九月也

답 전에 10월이라고 말 한 것은 9월인 것 같다.

問 領事又出示一簡曰此則親書乎代書乎

문 영사가 또 하나의 편지를 내 보이면서 이것은 네 친서이냐 대서이냐?

---

供 此亦代也

답 이 역시 대서이다.

問 其札亦代誰書之乎

문 그 편지는 누가 대필 한 것이냐?

供 此亦使接主書之而今難記其人

답 이것 또한 접주의 글이고 그 사람을 기억하기 어렵다.

問 汝於今日所供必須一一直告然後案可速結如或多端瞞告則不但事涉支離而亦有害多於汝身矣

문 오늘의 진술을 너는 반드시 사실을 고해야 한다. 그런 연후에야 일이 속결 될 것이다. 만약에 여러 가지로 속여서 고하면 일이 괴롭고 싫증만 날 뿐 역시 너 자신에게도 많은 해가 있을 것이다.

供 月日則果難詳記而其餘凡干焉得一毫瞞告乎

답 월일은 과연 자세히 기억하기 어려우나 그 나머지는 무릇 관계한 것을 어찌 조금이라도 속여 고했다고 하겠는가.

問 代書時必有所定之人何可不知乎

문 대서를 할 때에는 반드시 정해진 사람이 있을 터인데 어찌 모른단 말이냐?

供 其時 矣 身素筆拙故每使人代書而本無定人

답 그 때 나는 줄필이라 매번 사람을 시켜서 대서케 했는데 따로 정해진 사람은 없었다.

---

問 此兩札皆汝之所使乎

문 이 두 편지는 모두 다 네가 시킨 것이냐?

供 然矣

답 그렇다.

問 在參禮糾合之事皆出於汝乎

문 삼례의 규합은 모두 너로부터 나왔느냐?

供 然矣

답 그렇다.

問 然則凡係起包都是汝之所主者乎

문 그러면 모든(대부분, 대체로) 기포에 관한 것은 모두 네가 주도했느냐?

供 然矣

답 그렇다.

問 領事又出示一簡曰此亦汝之所使者乎

문 일본 영사가 또 하나의 편지를 보이면서 말하기를 이 또한 네가 시켜서 한 것이냐?

供 然矣

답 그렇다

問 領事又出示一簡曰此亦汝所使者乎<sup>125)</sup>

문 영사가 또 하나의 편지를 보이면서 말하기를 이것 또한 역시 네가 시켜서 한 것이냐?

---

125) 이때 나온 편지 통문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는 밝혀지지 않았다.

---

供 然矣

답 그렇다.

問 前日所供汝於金男初無相關云而今見此簡則問多相關者何也

문 지난번 진술한바 너와 김개남과 관계가 없다 했는데 지금 이 편지를 본 즉 두 사람 사이에 상관이 있으니 무슨 까닭이냐?

供 金則 矣 身勸以合力王事<sup>126)</sup>終不聽施故始有所相議者而終則絕不相關

답 김개남으로 말하면 내가 왕사에 협력하자고 권하였으나 끝내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상의 한 바 있으나 마침내는 끊어지고 상관하지 않았다.

問 領事出小片一錄示之曰此兩紙之筆法是一人之筆而前書則供以汝爲今書則何謂不知也

문 영사가 또 하나의 편지를 보이면서 말하기를 이 편지의 필법은 한 사람의 필체인데 지난번 편지는 네가 했다고 진술하고 지금의 것은 어찌 모른다고 하느냐?

供 今此之書非 矣身 所爲

답 지금 이 글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問 俄云參禮事皆出於汝而今此錄片之示非出於汝云者實涉模糊<sup>127)</sup>

문 전에 말하기를 삼례의 봉기한 일은 모두 너로부터 나왔다고 하였는데 지금 이 보여주는 기록은 너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니 실로 모호하구나.

---

126) 경복궁 쿠데타 이후 일본군을 물리치기 위한 것.

127) 강력하게 다그치는 문장.

---

供 錄片中徐鶴云者是徐丙鶴也而鶴與 矣 身絕不往來故謂非 矣 身之所使也  
답 그 글 가운데 서학이라고 한 것은 서병학을 말하는 것이고 서병학  
과 나는 왕래한 바 없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한 것이다.

問 東徒中差出接主是誰之爲

문 동도 가운데 접주를 차출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냐?

供 皆出於崔法軒

답 모두 최법현이 임명한다.

問 汝之爲接主亦崔之差出乎<sup>128)</sup>

문 네가 접주가 된 것도 역시 최법현이 임명한 것이냐?

供 然矣

답 그렇다.

問 東學接主皆出於崔乎

문 동학접주는 모두 최법현이 임명하느냐?

供 然矣

답 그렇다.

問 湖南湖西一切同然乎<sup>129)</sup>

문 호남과 호서는 전부 같은가?

供 然矣

답 그렇다.

---

128) 전봉준이 동학도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129) 남·북접은 없다는 이야기다. 남·북접은 실체로서 조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시기에 임시방편으로서 부른 것이다.

---

問 至如都執執綱之任亦皆崔之差出乎

문 도집·집강의 임명 같은 것도 전부 최법현이 임명하느냐?

供 雖多出於崔而或有接主等所差者白

답 대부분은 최법현으로부터 임명이 되고 간혹 접주들이 임명할 때도 있다.

## 乙未三月初十日全瑋準五次問目日領事問

問 今日亦如前查實矣無隱直招也

문 오늘도 전에 조사한 바와 같이 조사할 테니 숨기지 말고 바르게 고하라.

供 知悉矣

답 잘 알았다.

問 在參禮時昨年九月別無代書之人而自接主中替書果然耶

문 작년 9월 삼례에 있을 때 별도로 대서인이 없고 접주 가운데서 글을 대신 쓰게 한 것이 사실이나?

供 別無代書人而自接中遞爲寫之矣始令林五男寫之而以其無識置之又令金東燮暫爲代書也 供本無

답 따로 대서인은 없으나 접주 가운데 쓰게 하였다. 처음 임오남으로 하여금 이를 쓰게 하였으나 그가 무식하므로 바뀌어서 다시 김동섭으로 하여금 잠시 쓰게 하였다.

問 代書人惟金東燮林五男二人而已否

문 대서인은 오직 김동섭·임오남 두 사람 뿐이나?

供 接主中文季八崔大鳳趙鎮九或爲代書而不過書之幾次札而止也

답 접주 가운데 문계팔·최대봉·조진구가 혹 대서하였으나 몇 차례의 편지를 쓴데 불과하다.

問 汝與崔慶善相親爲幾年

문 너는 최경선과 서로 친하게 된 것이 몇 년이나 되었느냐?

供 以同鄉相親爲五六年矣

답 동향이므로 서로 친한 것이 5~6년이 된다.

---

問 崔曾於汝有相師<sup>130</sup>之分否

문 일찍이 최경선은 너와 선생과 제자 사이의 관계이냐?

供 只以親舊相從無師授之分也

답 다만 친구로서 상종할 뿐이지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는 아니다.

問 汝之所招似有不實處空延拖裁判且無有害於汝矣何故如此

문 너의 진술은 부실한 곳이 있는데 공연히 재판을 끌고 또 네게 해가 없을 터인데 어찌하여 그러하느냐?

供 別無欺情者而日前以宋喜玉事暫且隱之旋又明言也

답 따로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나 일전 송희옥과 관련된 일은 잠시 속였으나 다시 명백히 말하였다.

問 出示一紙曰以此爲非汝之親筆者非欺情而何

문 하나의 종이를 내보이면서 말하기를 이는 너의 친필이 아니냐? 어찌 속인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供 既供事吾事書吾書而獨云筆非吾筆有何 益於矣身而欺之也果非自筆也

답 이미 대답 중에 내가 관여한 일은 다 진술하였다. 글은 내가 쓴 글이지만 필적으로 말하면 내 필적이 아니다. 내가 무슨 이익이 있다고 거짓으로 말하겠는가. 내가 쓴 것이 아니다.

問 崔慶善之供以此爲汝筆而汝云非也豈非欺情乎

문 최경선의 진술로는 이것은 너의 필적이라고 하는데 너는 아니라고 말하니 어찌 속인 것이 아니냐?

---

130) 상사 : 선생과 제자 사이.

---

供 更問於崔則可也且使之習字則體畫可辨也

답 다시 최경선에게 물어보면 좋겠다. 또 습자를 시켜보면 필체의 획은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問 日前訊汝時汝云在參禮時無書記名色今云有書記名色者何耶

문 일전에 내가 말하기를 삼례에 있을 때 서기관이 없다고 하였는데  
지금은 서기관이 있는 것으로 말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供 向日大略言之也今細詳問之故其時暫爲代書者稱爲書記云也白<sup>131)</sup>

답 지난번은 대충 말하였던 것이고 지금은 상세히 이를 묻는 고로 그  
때 잠시 대서한 것을 서기라고 말하였다.

---

131) 전봉준이 보낸 격문·통문을 가지고 필체를 바탕으로 대필했다고 밝히는 과정에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 논쟁의 핵심은 여러 가지를 짐작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전봉준이 직접 써서 다른 지도자에게 보냈다고 하면 전봉준이 체포되어 있는 상황에 피해가 다른 지도자들에게 가기 때문에 상대의 피해가 덜 가게 배려한 측면과, 또 하나는 그렇게 얹어 가지고 일본이 조선을 자기들의 정치적 의도로 유리하게 하기 위한 것을 전봉준이 간파한 것이다.

乙未二月十九日全瑋準五次問目 日領事問<sup>132)</sup>

問 宋喜玉書中之所謂雲邊<sup>133)</sup>祕奇<sup>134)</sup>之虛實을汝何以의知乎

문 송희옥의 글(편지) 속에 이른바 대원군의 비기가 거짓인지 사실인지 너는 어떻게 알았느냐?

供 宋也素是浮浪故推以言之요且使雲邊으로或有此等事則宜有先通於 矣身 而不宜先及於宋이외다

답 송희옥은 평소에 믿을 수 없는 놈이기에 추측해서 말한 것이고, 또한 대원군으로 하여금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마땅히 나에게 먼저 보냈을 것이지 송희옥에게 먼저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問 宋之於汝에手下乎아手上乎아

문 송희옥은 너의 수하이나, 수상이나?

供 別無上下之可稱而便是齊等之人이외다

답 따로 상하로 할 것이 없고 서로가 똑같은 처지에 있다.

問 宋則再起時에不與於議乎아

문 송희옥과 재기포시에 더불어 상의하지 않았느냐?

供 矣身 起包時에雖或參席而初可左可右之說이외다

답 내가 재기포할 때에 가끔 참석하였으나 처음에 좌가 옳다 우가 옳다(횡설수설)는 말을 하였다.

問 宋之是事若無可左可右之說則假稱雲邊祕奇寄書他人者是何故也

문 송희옥이 한 일이 만약 좌가 옳다, 우가 옳다(횡설수설)란 말이면 대원군의 밀서를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고 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

132) 일본 영사가 와서 물었다.

133) 대원군.

134) 김개남, 전봉준, 충청도·전라도·경상도 각지의 농민군 지도자에게 보낸 밀지를 말한다.

---

供 宋之寄書或人初起一包雖難逆料而於 矣身 之事則傍觀耳<sup>135)</sup>

답 송희옥의 기서(밀지)는 다른 사람이 처음 기포한 것으로 시작되었고 비록 거슬러 누가 어떻게 했는지 짐작하기는 어렵지만 내 입장에서 방관했을 따름이다.

問 宋與汝로既非同包則彼此所行之事必有不相知及之端

문 송희옥과 너는 더불어 이미 같이 기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피차 송희옥과 한 일 사이에 반드시 서로 알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겠느냐?

供 然하니이다

답 그렇다.

問 然則宋之假稱祕奇을汝焉能明知오

문 그렇다면 송희옥이 비기라고 칭한 것을 어찌 환하게 알 수 있었느냐?

供 宋則初無留京之事亦非著名之人故自量言之외다

답 송희옥은 처음 서울에 머문 일이 없고 또 유명한 인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해서 말한 것이다.

問 合觀前後所供則宋之於汝에素是相親者而向云不知者亦一可疑也로다

문 전후의 진술한 것을 합하여 생각해 본즉 송희옥과 너는 본래부터 서로 친한데 줄곧 모른다고 하니 또한 의심이 간다.

---

135) 대원군의 밀지가 전봉준에게 오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한 신뢰성 때문에 지켜보는 입장이었다.

供 向者貴館捧供時出示之書似涉浮浪亦所不知者故若對以觀知者則必問其書之來歷而難於卞惑故暫此瞞告耳<sup>136)</sup>

답 지난번에 귀관(일본영사)에게 진술할 때에 보여준 글에서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였고, 만약에 대질하게 되면 아는 사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글의 내력을 물을 것이고 그렇다면 변명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해서 잠시 거짓으로 속여서 고했다.

問 然則問之利於汝者答之問之害於汝者以不知爲答可乎

문 그런즉 너에게 이로운 것을 물으면 대답을 하고 너에게 해로운 것을 물어보면 모른다고 대답하니 옳은 일이나?

供 不以利害로爲心而特緣難於卞惑而然이외다<sup>137)</sup>

답 이롭고 해로운 그런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고 단지 특별히 변명하기가 어려운 까닭에 그렇게 답한 것이다.

問 全羅道內人之反覆無常曾所得聞而今汝告亦襲是套然質問이既久情狀自露雖一言半辭라로必不得瞞告矣리라<sup>138)</sup>

문 전라도내 사람들이 앞뒤 행동이 다르다고 일찍이 들은바가 있는데 지금 네가 고하는 것은 역시 그러한 틀을 답습하고 있다. 그러나 질문이 자꾸 여러 가지를 물어보게 되면 사실은 스스로 드러날 것이니, 비록 한마디 말이라도 속이지 말고 고하도록 하여라.

136) 여기서 전봉준장군도 송희옥에 대해서는 계속 횡설수설하고 있다. 송희옥은 전라도 일대에 도소를 설치해서 폐정 개혁을 한 시기에 8도 도집강이었다.

137) 이 대목을 여러 가지로 짐작해 보면 송희옥, 대원군, 다른 농민군에게 가능한 피해가 가지 않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거나,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본인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결론은 송희옥 문제에 관해서는 계속 앞뒤가 맞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다.

138) 다시 전봉준을 압박하고 있다.

---

供 宋喜玉一事는雖係瞞告而其餘則初無片言之飭詐외다

답 송희옥에 관한 한 가지 일은 비록 거짓으로 속여서 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나머지는 처음부터 단 한 마디 말도 속인 것이 없다.

問 今此裁判係是兩國審判必無一毫稍偏之聽理然敢做不近理之說擬欲瞞過一時則懲貪黜奸之說皆無可信者耳

문 지금의 이 재판은 양국에 관계되는 심판으로 반드시 조금이라도 치우쳐서 듣지를 않을 것이다. 그러니 이치에 맞지 않은 말을 가지고 속여서 이 한순간을 넘어가려고 하게 되면 반드시 징계를 받을 것이니 모두가 다 믿지 않을 것이다.

供 數朔被執病又繫身不無一言之所失이외다

답 몇 달을 잡혀 있고 또 몸에 병이 들어 있으니 한 마디라도 실수가 없는 것은 아니다.

問 宋之於汝에無戚分乎아

문 송희옥과 너는 친척의 관계가 없느냐?

供 妻族七寸이외다<sup>139)</sup>

답 처족 7촌이다.

問 起包時始見於何處乎

문 기포시 어디서 처음 보았느냐?

供 雖始見於參禮而實無同包之事외다

답 삼례에서 보았으나 사실은 함께 기포한 일이 없다.

---

139) 전봉준의 죽은 아내가 송씨이다.

---

問 始見之時에有何所議之事乎아

문 처음 만났을 때에 무슨 의논이 있었느냐?

供 始見時에謂以此是可行之事니予亦追後起包上去云이러이다

답 처음 만났을 때 말하기를 이 기포하는 일이 행해질 때 나도 역시 기포해서 따라오겠다고 말하였다.

問 其時는何時오

문 그때는 언제이냐?

供 昨年十月再起時而日字則未詳이외다

답 작년 10월 재기포 할 때의 일이고 날짜는 자세히 알지 못한다.

問 汝之再起는是爲何事오

문 네가 재기포 한 것은 무슨 일 때문이냐?

供 前者所告에已悉하얏느이다

답 앞서 고한대로 이미 다 이야기 하였다.

問 汝與宋으로參禮相見時에無或稱托雲峴之說乎

문 네가 송희옥과 더불어 삼례에서 만났을 때 혹시 대원군의 말이라고 칭한 적이 없느냐?

供 宋稱以向有自雲邊下來二月謂以從速上來似好爲教云故 矣身 問有書字乎아答無 矣身 責以不見文字而橫豎之說實近荒唐且不必言雲峴宮之爲教而事之當行者我自當之라하얏느니다

답 송희옥이 대원군으로부터 왔다고 칭하면서 2월에 속히 올라오면 좋을 것 같다고 말하기에 내가 문기를 서찰이 있느냐고 하였더니 대답이 없었다. 내가 서찰을 볼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추궁을 했더니 횡설수설 하면서 실제로 황당해하는 것에 가까웠다. 또한 대원군이 내린 교지라고 말할 필요 없이 그것을 내 스스로 담당 하겠다고 하였다.

---

問 參禮起包之衆爲幾何

문 삼례에 기포할 때는 군중은 얼마나 되었느냐?

供 四千餘名이외다

답 4천여 명이였다.

問 其後接戰在何日고

문 그 후 며칠을 접전하였느냐?

供 自參禮趙發後二十餘日爲始接戰이외다

답 삼례에서 일어나 20여일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접전하기 시작하였다.

問 宋之言自雲峴宮<sup>140)</sup>下來之二人姓名爲誰오

문 송희옥의 말에 대원군으로부터 내려온 두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나?

供 其時則得聞知之矣今則難記외다

답 그때는 들어서 알았으나 지금은 기억하기 어렵다.

問 二人姓名雖俱不得聞而於姓於名間終無可記乎

문 두 사람의 성과 이름은 듣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이름이나 성을 끝내 기억할 수 없단 말이나?

供 其姓則似是朴鄭而未詳耳

답 그 성은 박가인가 정가인 것 같은데 자세히 모르겠다.

問 朴鄭則不是朴東鎮鄭寅德否아

문 성이 박가와 정가라고 한다면 박동진, 정인덕이 아니냐?

---

140) 대원군의 거처.

---

供 朴東鎭是分明而鄭則未詳이외다

답 박동진은 분명하나 정가는 자세히 알 수가 없다.

問 朴鄭之見宋也謂有何言고

문 박동진과 정인덕은 송희옥을 만나서 무슨 말을 하였느냐?

供 宋稱雲峴宮亦是待汝之上來라하더이다

답 송희옥이 말하기를 대원군도 역시 내가 올라오기를 기다린다고 했다.

問 宋喜玉今在何處오

문 송희옥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供 今番上來時에聞之則死於高山民兵<sup>141)</sup>云而未詳이외다

답 이번 서울로 올라갈 때 들으니 고산에서 민병에게 살해되었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 수 없다.

問 雲峴宮曉諭文何得見고

문 대원군의 효유문은(언제 어디서) 어떻게 보았느냐?

供 九月在泰仁本第時에接率一人騰艸來示외다

답 9월 태인 본가에 있을 때 거느리고 있던 부하(도인) 한 사람이 베껴 와서 보여주었다.

問 其時方張起包乎

문 그때 바야흐로 봉기할 때였느냐?

供 其時는在家治病而無意於起包외다

답 그 때(9월)는 집에 있으면서 병을 치유하고 있어서 기포할 뜻이 없었다.

---

141) 민병은 동학농민군을 탄압한 반농민군 즉, 탄압 측이다.

---

問 其道內에無東徒之滋擾乎아

문 그 무렵 도내에(전라도) 자못 동도의 소요가 없었느냐?

供 其時則金開男等作擾於列邑이외다

답 그때에는 김개남 등이 이끄는 농민군이 여러 고을에서 소요를 일으키고 있었다.

問 列邑則何邑고

문 여러 고을이라 함은 어느 고을이냐?

供 淳昌龍潭錦山長水南原<sup>142)</sup>等而其餘則未詳이외다

답 순창·용담·금산·장수·남원 등이나 그 이외는 자세히 모르겠다.

問 大院君曉諭文은只有一次之見乎아

문 대원군이 보낸 효유문은 단지 한 번만 보았느냐?

供 然하니이다

답 그러하다.

問 曉諭文措以何辭오

문 효유문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었느냐?

供 汝等之今此起鬧<sup>143)</sup>實由守宰<sup>144)</sup>之貪虐과衆民之冤屈이니從今以後에  
官之貪虐必懲之民之冤屈者必伸之矣各歸安業爲可而如或不遵則當治  
之以王章云이러이다

답 너희들의 이번 소요는 실로 수령들의 탐학과 백성의 원통함에 말  
미암은 것이니 앞으로는 관의 탐학은 반드시 다스리고 백성의 억  
울함은 반드시 풀어 줄 것이니 각기 집으로 돌아가 생업에 종사하  
는 것이 옳을 것이나 만약 이 효유문을 따르지 않는다면 마땅히  
나라 법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하였다.

---

142) 내륙지역으로 지리산과 가깝고 전라좌도이며, 김개남포의 접들을 중심으로 먼저 김개남군이 일어났다.

143) 기료 : 봉기, 백성들이 법을 어기고 일어나는 행동.

144) 수재 : 수령의 다른 말로 군수 현감 등을 말한다.

---

問 曉諭文에 有 印蹟乎아

문 효유문에는 도장이 찍혀 있었느냐?

供 矣身 所見係是臆艸故無之而其到官原本則有之云而揭付於坊曲이러이다

답 내가 본 것은 베낀 것이기 때문에 도장이 없었는데 관에서 접수한 원본에는 도장이 있었다고 하며 마을마다 붙여 있었다고 한다.

問 揭付坊曲則是誰之爲也오

문 마을에 붙이는 일은 누가 했느냐?

供 自官爲之云이러이다

답 관에서 했다고 한다.

問 曉諭文은誰爲持往고

문 효유문은 누가 가지고 왔느냐?

供 帶主事之銜者持往云이러이다

답 주사를 거느린 암행어사가 가지고 왔다.

問 其時曉諭文을汝視之爲眞乎爲假乎아

문 그때 본 효유문을 너는 진짜라고 생각했느냐 가짜라고 생각했느냐?

供 既是自官으로揭付則焉有視之以假乎

답 이미 관에서 붙였는데 어찌 그것을 가짜로 여겼겠는가.

問 汝既視之以眞則胡爲再起乎<sup>145)</sup>

문 너는 이미 그것을 진짜로 알았다면 어찌 기포 하지 않았느냐?

---

145) 胡~~乎 : 어찌 ~~하지 않았느냐?

供 欲詳貴國<sup>146)</sup>之裏許而然<sup>이외다</sup><sup>147)</sup>

답 당신네 나라의 속마음을 자세히 알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問 既詳裏許後將行何事計也<sup>오</sup>

문 이미 일본의 속셈을 알고 난 후에는 장차 무슨 일을 행하려고 했느냐?

供 欲行輔國安民<sup>148)</sup>之計也<sup>니이다</sup>

답 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계책을 행하려고 했다.

問 汝之再起不信大院君之曉諭文乎

문 네가 재차 기포한 것은 대원군의 효유문을 믿지 못해서이냐?

供 前此 廟堂之曉諭文<sup>149)</sup>不止一二而終無實施下情難於上達澤難於下究  
故期欲一次抵京詳陳民意<sup>하리하이</sup><sup>니이다</sup>

답 지난날에 조정의 효유문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끝내 실시된 바  
없어 백성들의 사정이 위에 도달할 길은 어렵고 위의 은택을 궁구  
하기가 어려운 까닭에 일차 상경하여 백성의 뜻을 자세히 진정하  
려고 한 것이다.

問 既見曉諭文而敢事再起不是所失乎

문 이미 효유문을 보고서도 감히 재차 기포를 한다면 실수가 아니냐?

供 不爲目親覩耳親聞則難可深信故乃事再起豈有所失乎

답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직접 듣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재차 기포하는 것이 어찌 실수랄 게 있겠느냐.

146) 귀국 : 일본.

147) 효유문이 내려온 배경에는 일본군이 경복궁 쿠데타 이후 친일내각을 세우고 대원군은 허수아비로 만든 상태에서, 대원군은 일본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실제로는 뒤집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 상황 속에서 전봉준장군은 일본 측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고 있었다.

148) 보국안민 : 전봉준장군은 단 한 번도 본인이 반란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보국안민은 세종 때 자주 언급 되다가 다시 동학 때 등장·강조되고 있다.

149) 묘당의 효유문은 고종의 효유문으로 해산하라는 내용의 효유문이다.

問 俄之所告에謂以所失者何事也오

문 네가 일찍이 고한 바에 실수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나?

供 俄之稱所失者是指不詳時事之裏許而不謂曉諭文見不見이외다

답 내가 조금 전에 실수라고 한 것은 그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가리키지 못했음을 말한 것이지 효유문을 보았다거나 못 보았음을 말한 것은 아니다.

問 汝之再起以大院君曉諭文으로視爲開化邊之所壓而兼有雲峴宮이故待汝等之上來而乃行此事乎

문 네가 재차 기포한 것은 대원군의 효유문이 개화파의 압력을 받은 것으로 보았고 아울러 대원군이 네가 위로 올라 올 것을 몹시 기다린다고 생각하고서 비로소 이런 일을 행한 것이냐?

供 曉諭文之爲開化邊壓不壓은實所不計而至於再起事出於 矣 等本心이요且雖有大院君之曉諭文字不可深信故力圖再起외다<sup>150)</sup>

답 대원군의 효유문이 개화파로부터 압력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는 것이고 재기포하게 된 것은 우리들의 본심에서 우려나온 것이며 또한 대원군의 효유문의 내용을 깊이 믿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힘써 재기포를 도모한 것이다.

問 日兵之犯於 <sup>151)</sup>關聞於何時오

문 일본군이 대궐을 침범하였다는 말은 언제 들었느냐?

供 聞於七八間月이외다

답 7~8월(음력) 사이에 들었다.

150) 이 대목은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일본 측은 대원군과 동학농민군이 연계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집중 추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봉준장군은 그들의 속셈을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관계를 부정하고 있다. 또한 중요한 대목으로 전봉준장군-농민군의 2차 봉기는 대원의 효유문이 있었기 때문에 기포한 것이 아니고 농민군들이 보국안민을 정부 측에 전달하기 위해서 재 기포한 것이며, 독자적인 봉기다.

151) 임금과 관련된 표현이 나올 때는 한 글자를 떼다.

---

問 聞於何人고

문 누구에게 들었느냐?

供 聽聞狼藉故自然知之외다

답 들리는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저절로 알게 되었다.

問 旣曰倡義則聞宜卽行何待十月고

문 이미 의로운 깃발을 들었으면 즉시 기포해야지 무엇 때문에 10월  
까지 기다렸느냐?

供 適有 矣 病且許多人衆을不能一時齊動兼之新穀未登自然至十月이외다

답 때마침 몸이 아플 뿐만 아니라 군중을 한꺼번에 움직일 수 없었고  
겸하여 새 곡식이 아직 여물지 않아 저절로 10월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問 大院君之有涉於東學事는世所共知且大院君今無威權則汝罪之輕重只在  
此場不在大院君而汝之終不直招有似乎深望大院君之暗護者是果何意오

문 대원군이 동학의 일에 간섭했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모두 아는 것  
이며, 또한 대원군은 이제 권위와 권세가 없으니 네 죄의 경중은  
바로 이 재판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대원군에게 있는 것이 아닌데  
도 너는 끝내 바른대로 말하지 않고 마치 대원군의 암암리 보호를  
깊이 바라는바가 있는 것 같으니 과연 무슨 의도이냐?

供 大院君有涉他東學雖曰百十輩而至於 矣 身則初無所涉이외다

답 대원군이 다른 동학도와 관련된 것이 비록 수백의 무리라고 할지  
라도 나와는 처음부터 관련된 것이 없다.

問 大院君與東學으로有所相關은世所共知而汝獨不聞乎아

문 대원군이 동학과 서로 관련되었음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일  
인데 어찌 너만 못 들었다고 하느냐?

---

供 實所未聞이외다

답 정말로 들어본 적이 없다.

問 大院君之與東學相關은初無一事之所聞者乎

문 대원군이 동학과 서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단 한 가지도 들어 본 적이 없다는 것이냐?

供 然矣而在我者도猶不諱커든況他人乎

답 그렇다. 내가 책임져야 할 것도 숨기는 바가 없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의 것은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問 宋喜玉之與大院君有所相關汝亦知之乎

문 송희옥과 대원군이 서로 관계가 있는 것을 너도 알고 있느냐?

供 宋喜玉도必無相關이외다

답 송희옥은 전혀 관련된 것이 없다.

問 汝何以知其無相關乎

문 그들이 관련된 것이 없다는 것을 너는 무엇으로 아느냐?

供 宋喜玉之於大院君에有所證票則實所未詳然自詳則必無相關이외다白

답 송희옥과 대원군 사이에 증표가 될 만한 것이 있다면 사실 모르겠으나 내스스로 자세히 헤아려 본즉 전혀 서로 관련이 없다.